國土統一에 關한 知識人輿論調査

1973. 8.

提　出　文

国 土 統 一 院 長 官

이 報告書를 「国土統一에 관한 知識人與論調査」의

最終報告書로 제출합니다.

1973. 8. 30

調査機関名：　東国大学校　安保研究所

調査責任者：　閔　丙　天

目 次

部 調査方法 …… 3

1章 調査内容 및 対象 …… 5

第2章 調査의 実施 및 処理 …… 16

2部 調査結果 …… 19

第1章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 21

第1節 統一方案 …… 23

第2節 統一国家의 社会体制 …… 29

第3節 平和냐 統一이냐 …… 34

第4節 不統一要素 …… 40

第5節 統一解決機関 …… 47

第6節 統一時期予測 …… 51

第7節 統一実現順序 …… 56

第2章 統一과 関聯된 情勢観 …… 61

第1節 UN(美)軍撤収 …… 63

第2節 四強接近과 統一問題 …… 69

第3節 南侵可能性 …… 74

第4節 北韓印象 …… 79

5節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 …… 83

節 対北説得自信度 …… 87

章 対話 및 交流에 관한 意見 …… 93

第1節 交流의 第1順位 …… 95

第2節 交流와 北韓自由化 …… 100

第 3 節　交流時의　脆弱勢力 …… 103
第 4 節　南北対話의　進度 …… 107
第 5 節　対話의　継続与否 …… 111
第 6 節　調節委　進展方案 …… 116
第 7 節　赤十字会談展望 …… 119
第 8 節　調節委　展望 …… 124
第 4 章　6.23 宣言에　관한　意見 …… 129
第 1 節　6.23 宣言賛反 …… 131
第 2 節　6.23 宣言에　反対한　北韓態度 …… 138
第 3 節　UN에서의　地位 …… 141
第 4 節　언커크解体与否 …… 145
第 5 章　対備態勢에　관한　意見 …… 147
第 1 節　平和達成方案 …… 149
第 2 節　外交의　重点方向 …… 153
第 3 節　UN外交의　方向 …… 156

第 3 部　結論 (問題点) …… 159
第 1 章　基本的　問題点 …… 161
第 2 章　項目別　問題点 …… 164

第 1 部　調 査 方 法

第 1 章　調査内容 및 対象 5

第 2 章　調査의 実施 및 処理 12

第 1 章 調査内容 및 対象

第 1 節 調 査 内 容

本調査는 다음과 같은 内容에 의해서 39個의 設問을 구성하여 面接記入方式에 따라 이루어졌다.

가.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나. 統一과 관련된 国際 및 北韓情勢観

다. 南北対話 및 交流에 대한 意見

라. 国家安保에 관한 意見

마. 6・23宣言에 관한 意見

이상과 같은 内容으로 구성된 本調査를 위해서 設問이 다음 調査票와 같이 作成되었다.

통일에 관한 지식인의 여론조사

(1)권 일 연번호	(2-3) 매수일 연번호	(4)성별	(5)연령	(6)직 업		(7)학 력	(8)이산가족 여 부	(9)지 역
		1) 남 2) 여	1)20 대 2)30 대 3)40 대 4)50 대 5)60 대	1)대학생 2)교육자 3)법조인 4)문화, 예술인	5)의 사 6)언론인 7)공무원 8)경제인	1)중, 고등 2) 대학	1)월남가족 2)월북가족 3)해당없음	

(10) 귀하는 통일을 이룰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어떤 방안으로도 통일은 불가능하다.

2) 무력통일

3) 남북 총선거

4) 남북 연방제

5) 기타의견 :

(11)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어떤 사회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자유 민주체제여야 한다.

2) 통일이 된다면 공산체제도 좋다.

3) 통일이 된다면 중간체제도 좋다.

4) 통일이 된다면 어떤체제도 좋다.

5) 기타의견 :

(12) 귀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가운데 어떤것을 중요시합니까?

1) 통일이 안되더라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2) 전쟁이 있더라도 통일은 되어야 한다.

3) 아무래도 좋다.

(13) 귀하는 통일이 안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주변 강대국

2) 한국

3) 북한

4) 유엔의 조정능력상실

5) 기타의견 :

(14) 귀하는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1) 어떤 기구로도 불가능하다.

2) 유엔

3) 4대강국의 기구

4) 남북한 민족회의 또는 남북 정부 대표자회의

5) 남북 조절위원회

6) 남북 정상회의

7) 기타의견 :

(15) 귀하는 현 정세로 보아 언제쯤 통일이 될것으로 보십니까?

1) 영원히 불가능하다. 2) 5년 이내

3) 10년 이내 4) 20년 이내

5) 30년 이내 6) 30년 이상

7) 통일은 되지만 언제될지 모르겠다.

8) 기타의견 :

(16) 귀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어떤 순서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1) 비정치적인 문제에서 정치 및 군사문제로의 접근

2) 정치 및 군사 문제의 우선 해결에 이은 일괄 해결

3) 전 분야의 병행접근

4) 기타의견 :

(17) 현재 남북대화에서 인도적 교류를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적 교류 다음에 이어 어떤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1) 비정치적 교류의 단계적 해결

2) 비정치적 교류의 일괄해결

3) 기타의견 :

(18) 귀하는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사회에 자유화 물결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봅니까?

1) 곧 주민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줄것이다.

2) 수년간 교류가 있어야만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3) 완전 통일까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4) 모르겠다.

5) 기타의견 :

✓(19) 귀하는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어느층이 가장 취약한 층이라 봅니까?

1) 영세 농어민

2) 도시의 하급 노동층

3) 월북가족

4) 월남가족

5)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

(20) 귀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미)군이 철수해도 좋다고 봅니까?

1) 곧 철수해야 한다.

2) 있어도 좋고 철수해도 좋다.

3) 당분간 철수하면 안된다.

4) 통일이 될때까지 철수하면 안된다.

5) 기타의견:

(21) 귀하는 미·소·일·중공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까?

1) 분단 상태를 고정화 시킬것이다.

2) 평화통일을 촉진 시킬것이다.

3) 무력통일을 촉진할것이다.

4) 아무 영향도 없을것이다.

(22) 지금의 정세로 보아 유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취해야 하겠읍니까?

1) 한국만 가입토록 노력한다.

2) 남북한 모두 가입토록 한다.

3) 한국만 초청 참석토록 한다.

4) 남북한 모두 초청 참석토록 한다.

(23) 귀하는 한국에 있는 한국통일 부흥위원단(언커크)를 해체해도 좋다고 봅니까?

1) 곧 해체해야 한다.

2) 있어도 좋고 해체해도 좋다.

3) 당분간 해체하면 안된다.

4) 유엔의 결의가 있으면 해체해도 좋다.

5) 통일이 될때까지 해체하면 안된다.

(24) 귀하는 북한의 무력침략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1) 무장공비 침투만은 있을 것이다.

2) 완전히 없을 것이다.

3) 당분간 없을 것이다.

4) 전면 남침할 위험이 있다.

(25) 귀하는 북한의 풍경을 보고 들은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1) 보고 듣지도 못했다.

2) 주민의 모습이 생기가 없는것 같았다.

3) 판에 박은듯한 모습이었다.

4) 짜임새 있는 모습이었다.

5)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26) 귀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면에서 어디가 더 잘산다고 보십니까?

1) 우리 국민이 더 잘산다.

2) 서로 비슷하다.

3) 북한 주민이 더 잘산다.

4) 모르겠다.

(27) 귀하는 북한 동포를 만났을 경우 한국의 우월성을 설득할 자신이 있읍니까?

1) 자신이 있다.

2) 자신이 없다.

3) 만나봐야 알겠다.

4) 기타의견

(28) 귀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1) 너무 지지부진하다.

2) 너무 빨리 진전되어 간다.

3) 적절하다.

(29) 귀하는 지난 남북 대화의 실적으로 보아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까?

1) 모두 중지하는 것이 좋다.

2) 모두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3) 조절위원회만 계속하는 것이 좋다.

4) 적십자 회담만 계속하는 것이 좋다.

5) 다른 기관을 만들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6) 기능별로 여러기구를 만들어 확대 시키는 것이 좋다.

이유 :

(30)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진전시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읍니까?

1) 평화협정과 같은 군사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2) 사회, 경제, 문화등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3) 모든 분과위원회 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4) 아무래도 좋다.

5)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이유 :

(31) 귀하는 남북 적십자회담이 앞으로 어떤 사업까지 성취 시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1) 회담 자체가 실패할 것이다.

2) 생사 및 주소 확인에 그칠 것이다.

3) 서신 교류와 면회까지는 실현시킬 것이다.

4) 상호 방문까지는 실현시킬 것이다.

5) 가족의 재결합까지 실현시킬 것이다.

(32) 귀하는 남북 조절위원회 회담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성취시켜 놓을 것으로 봅니까?

1)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2)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시킬 것이다.

3) 정치적 교류를 실현시킬 것이다.

4) 대외활동에 공동 보조를 취하게 할 것이다.

5) 군비축소, 평화협정 체결등을 실현시킬 것이다.

(33) 귀하는 지난 6월 23일에 있은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선언이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까?

1) 의의가 있다. (문34로 갈것)

2) 의의가 없다. (문35로 갈것)

3) 모르겠다.

(34) 어떤 점에서 가장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북한에 대해 주도권을 잡을수 있기 때문

2) 전쟁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3) 공산국가와도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

4)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5)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

6) 기타 (   )

(35) 어떤 점에서 가장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1) 북한의 국제진출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2) 북한이 이 제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3) 공산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4) 두개의 한국론을 정당화 시키기 때문에

5) 분단이 고정화 될 것이기 때문에

6) 기타 (   )

(36) 귀하는 6·23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봅니까?

1) 차츰 받아들일 것이다.

2) 끝까지 묵살하려 할 것이다.

3) 분단책임 전가에 열중할 것이다.

4) 모르겠다.

(37) 귀하는 앞으로 어떤 외교활동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1) 유엔군 철수 방지활동

2) 유엔에의 남북한 가입활동

3) 우방의 대북한 승인 억제활동

4)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활동

5) 미국과의 유대강화

(38) 귀하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면 어떤 일에 가장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까?

1) 북한과의 접촉 계속

2)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

3)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

4) 우리 자체의 확고한 대비

이유 :

(39) 현 정세로 보아 금번 제28차 유엔총회가 한국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측 입장에서는 어떤 안을 제의하였으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의견)

조사자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第 2 節　対　象　者

本調査는 다음과 같은 対象者에 限定되었다.

가. 서울, 釜山, 光州, 春川에 居住하는 知識人

나. 知識人으로서는 教育者(大学 및 初中高教員), 大学生, 法曹人(弁護士), 文化芸術人(宗教人, 体育人, 文化·芸術人), 医師, 言論人 公務員, 経済人등으로 設定했다. 일반적으로 知識人이라고 할때는 職業面에서는 公務員과 経済人을 포함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들의 影響力이 클뿐만 아니라 経済交流問題등도 있기 때문에 本調査에서는 포함시켰다.

다. 対象人員은 600名으로 하였다.

第2章 調査의 実施 및 処理

第1節 対象者割当

被調査者 600名을 地域別 및 職業別로 事前에 割当하는 方式을 취하였는바 割当된 人員과 調査된 人員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1-1> 표본지역별인구수

지 역	인 구 수
서 울	5,536,377
부 산	1,880,710
춘 천	122,672
광 주	502,753

<表1-2> 지역별표본할당표

지 역	기초표본수	할당표본수	계
서 울	25	345	370
부 산	25	117	142
춘 천	25	7	32
광 주	25	31	56
계	100	500	600

<表 1 - 3>　계층별, 지역별할당

계층 / 지역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 예술인	의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계
서울	93	67	30	29	29	29	63	30	370
부산	35	25	12	12	11	11	25	11	142
춘천	8	6	2	2	3	3	5	3	32
광주	14	10	4	5	5	5	9	4	56
계	150	108	48	48	48	48	102	48	600

<表 1 - 4>　조사된 계층별, 지역별 표본수

계층 / 지역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 예술인	의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계
서울	93	68	28	28	29	29	63	30	368
부산	34	26	12	12	10	11	26	11	142
춘천	8	6	2	2	3	3	5	3	32
광주	15	10	5	5	5	5	9	4	58
계	150	110	47	47	47	48	103	48	600

<表 1 - 5>　조사된 지역별 표본수

지역	표본수
서울	368
부산	142
춘천	32
광주	58
계	600

<表 1 - 6>　조사된 연령별 표본수

연령	표본수
20 대	183
30 대	216
40 대	140
50 대	53
60 대	8
계	600

<表1-7> 이산가족 여부

이산여부 \ 지역	서 울	부 산	춘 천	광 주	계
월남가족	51	14	5	3	73
월북가족	5	0	0	1	6
해당없음	312	128	27	54	521
계	368	142	32	58	600

<表1-8> 조사된 성별 표본수

성 별	표 본 수
남 자	515
여 자	85
계	600

第2節 調 査 員

調査員은 本研究所 研究員 및 東国大学校 在学生으로 하였다.

調査員에 대한 訓練은 3次에 걸쳐 실시되었는바 第1次는 調査에 대한 基本事項, 第2次는 調査技術, 第3次는 問項에 관한 것과 準備事項등이 중점적으로 訓練되었다.

第3節 調査의 実 施

調査를 위한 準備와 処理까지의 期間은 1973年7月2日부터 8月30日까지의 2個月間이었지만 調査員이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8월1日부터 12日까지의 기간이었다.

調査員은 割当된 바에따라 面接記入方式의 調査를 실시하였다.

第4節 処 理

蒐集된 調査票는 編輯된 후 Coding作業을 거쳐 IBM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集計되었고 그것은 製表化하였다.

分析에 있어서는 従来에 調査됐던 同一項目에 대해서는 比較分析을 하였다.

第 2 部　調 査 結 果

第 1 章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19

第 2 章　統一과 관련된 情勢觀 61

第 3 章　対話 및 交流에 대한 意見 93

第 4 章　6.23 宣言에 관한 意見 129

第 5 章　対備態勢에 관한 意見 147

第 1 章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第 1 章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第 1 節 統一方案

解放以後 우리나라에서는 갖가지의 統一方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제시하여 意見을 묻기는 매우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국 統一方案은

① 武力에 의한 吸収統一方法과

② 聯邦이나 기타의 形式에 의한 対等統一方法 및

③ 選挙에 의한 不確実性統一이라는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겠다.

이들 3個方案에 대한 意見을 물은 結果는 다음 表2-1-1과 같았다.

<表2-1-1> 統一方案 (全体)

구분 \ 비율	명	%
통일불능	83	13.7
무력통일	24	4.0
선거통일	355	59.1
남북연방제	67	11.2
어떤방안도 무관	43	7.2
모르겠다.	25	4.2
무응답	4	0.7

앞의 表2-1-1에서 보듯이 몇가지 特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吸収武力統一에 대한 賛成이 不過 4%에 지나지 않는다.

즉, 戦争을 치르는 統一方式은 賛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表2-3-1에서 보듯이 「戦争없는 分断」이냐 「戦争있는 統一」이냐의 択一에 있어서는 「戦争不辞」가 23.2%나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平和統一(選挙)을 願하지만 不可避할 때는 武力統一도 不辞한다는 者가 23.2%가 된다는 뜻이다.

② 聯邦과 같은 対等方式에 대한 意見은 그것이 北韓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反応에 関心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11.2%의 反応밖에 없었다.

그러나 後述하겠지만 이 数値는 72年度의 知識人(大卒者)의 意見인 9.63%보다 늘어난 数임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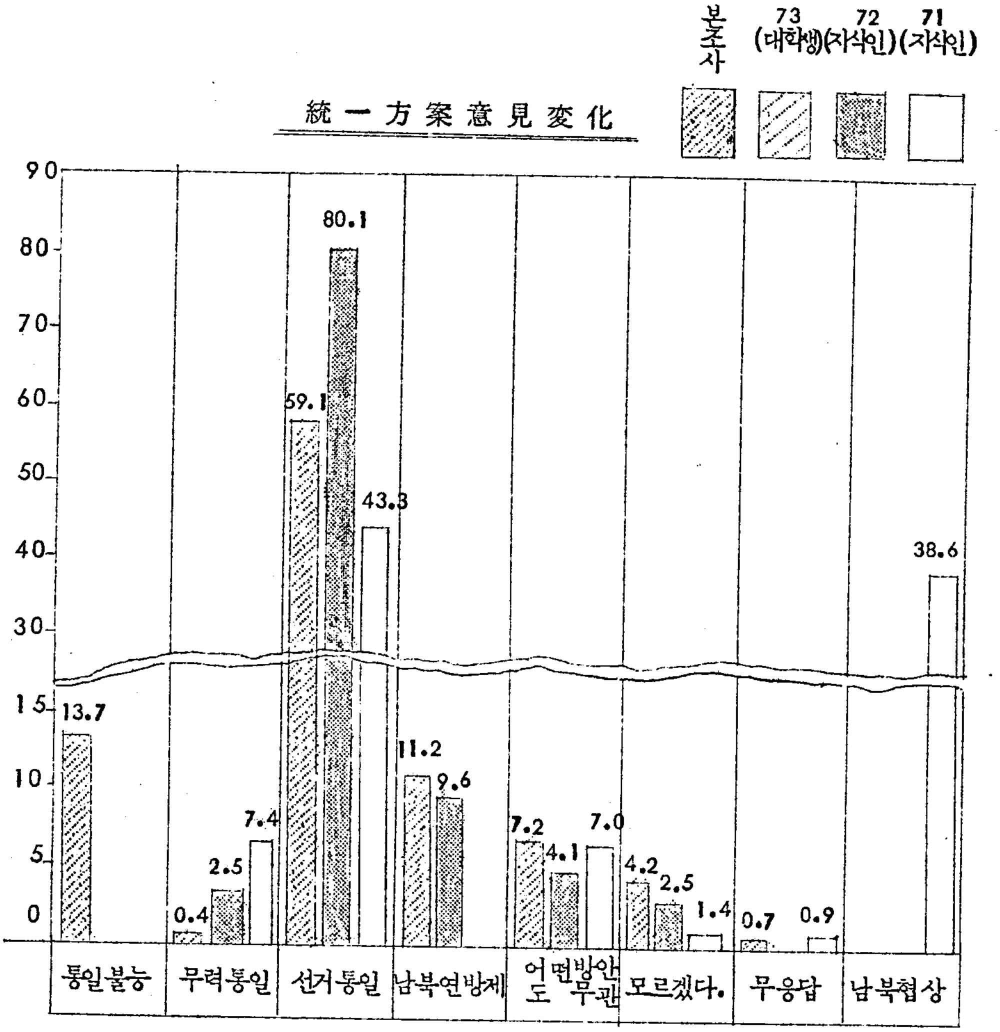
③ 選挙에 의한 不確実方法에 대한 支持率은 59.1%로서 過半数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UN監視下의 南北総選 支持率이 가장 높다. 즉 600名中 254名(42.3%)가 UN監視下의 南北総選을 지지하고 있고 北韓만의 選挙는 5名에 不過 (0.8%)하며 外部監視없는 南北総選은 11.2%이고 中立国監視下의 南北総選은 4.8%(29名)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政府가 주장하는 「平和的 選挙方法에 의한 統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고 특히 政府公式方案인 UN監視下의 南北総選 案에 대한 支持率이 全体의 42.3%나 된다. 이것은 知識人이 UN을 「外勢」로 보지 않음을 뜻하며 統一問題에 관해서는 政府協助型의 意識態度를 보임을 의미한다.

④ 統一이 不可能할 것이라는 統一諦念論者가 13.7%나 된다는 점이다.

南北対話過程에서 보인 南北関係의 解決困難性, 国際情勢등이 이러한 反応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하겠다.

이제 이번의 調査結果와 다른 調査結果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表2-1-2 와 같다.

表2-1-2



전에 실시한 調査結果와 이번의 調査結果와를 비교하여 나타난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選挙方式에 의한 것은 72.9月의 全国民調査때의 大学出身者 意見보다 훨씬 줄어 80.11%에서 59.1%로 되었다. 이것은 選挙實施가 쉬운일이 아님을 対話過程에서 느끼게 됐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로 보인다.

② 選挙方式賛成率이 줄면서 武力統一論者는 2.45%에서 4.0%로 聯邦制論者는 9.63%에서 11.2%로 늘었으며 無関心論者가 많이 늘어났다. 無関心論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諦念論이 증가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注目할 필요가 있다.

한편 各 所属別 意見은 다음 表들과 같다.

統 一 方 案

<表2-1-3>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불능	48	26.23	20	9.26	7	5.00	6	11.32	1	12.50		
무력통일	9	4.92	12	5.56	3	2.14	·	·	·	·		
선거통일	71	38.79	132	61.11	107	76.43	39	73.59	6	75.00		
남북연방제	32	17.49	20	9.26	11	7.86	3	5.66	1	12.50		
어떤방안도 무관	13	7.10	19	8.80	7	5.00	4	7.55	·	·		
모르겠다.	8	4.37	12	5.56	4	2.86	1	1.89	·	·		
무응답	2	1.09	1	0.46	1	0.71	·	·	·	·		

<表 2-1-4>

統 一 方 案

<직업별>

비율 / 구분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의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불능	40	26.67	15	13.64	4	8.51	5	10.64	4	8.51	8	16.67	3	2.91	3	6.25
무력통일	8	5.33	5	4.55	3	6.38	·	·	1	2.13	1	2.08	5	4.85	1	2.08
선거통일	55	36.67	67	60.91	30	63.83	31	65.96	33	70.22	28	58.33	78	75.73	33	68.76
남북연방제	26	17.33	15	13.64	8	17.02	6	12.77	3	6.38	2	4.17	4	3.88	3	6.25
어떤방안도무관	12	8.00	2	1.82	·	·	5	10.64	5	10.64	3	6.25	9	8.74	7	14.58
모르겠다.	8	5.33	4	3.64	2	4.26	·	·	1	2.13	6	12.50	4	3.88	·	·
무응답	1	0.67	2	1.82	·	·	·	·	·	·	·	·	·	·	1	2.08

<表 2-1-5>

統 一 方 案

<지역별>

비율 / 구분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통일불능	53	14.4	8	5.6	15	25.9	6	18.8
무력통일	17	4.6	4	2.8	2	3.4	1	3.1
선거통일	217	58.9	89	62.7	31	53.5	18	56.2
남북연방제	33	9.0	26	18.3	4	6.9	4	12.5
어떤방안도 무관	23	6.3	14	9.9	4	6.9	2	6,3
모르겠다.	22	6.0	1	0.7	1	1.7	1	3.1
무응답	3	0.8	·	·	1	1.7	·	·

앞의 表들에서 나타난 所屬別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代에 統一諦念論者가 뚜렷이 많고(26.23%) 職業別로는 大学生(26.67%)과 地域別로는 光州(25.9%)가 두드러지다.

② 選挙統一에 대한 支持率에 있어서는 大学生(36.67)은 公務員(75.7%)의 半數도 안되며 20代(38.79%)는 40~60代의 70%水準의 半밖에 안된다.

③ 聯邦制에 대한 支持率은 20代에서 두드러져 最少値인 50代의 5.66%의 3倍(17.49%)에 이르고 있다. 職業別로는 大学生(17.3%)과 法曹人(17.0%)이 最少値인 公務員(3.88%) 및 言論人(4.17%)의 4~5倍에 이르고 있다.

職業으로 보아 가장 進步的인 大学生과 가장 保守的일 수 있는 法曹人이 聯邦制에 많이 同調하고 있다는 점에 注目할 필요가 있겠다.

④ 地域的으로도 統一方案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統一不能으로 보는 率이 光州의 경우는 25.9%나 되지만 釜山은 5.6%에 불과하며 南北聯邦制에 대한 支持率에 있어 光州는 6.9%에 불과하지만 釜山은 18.3%나 된다.

第 2 節　統一国家의　社会体制

自由民主統一을 어느만큼 강렬히 바라며 確信性을 가지고 있는가의 問題와 統一方法에 대한 間接的인 意見捕捉을 위해서 「統一이 된다면 어떤 社会体制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反応이 다음 表 2-2-1과 같이 나왔다.

<表 2-2-1>

統一国家의 社会体制 (전체)

구분 ＼ 비율	명	%
자유민주체제	402	67.0
공산체제도 좋다.	1	0.2
중간체제도 좋다	156	26.0
어떤체제도 좋다	39	6.5
무 응 답	2	0.3

表 2-2-1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自由民主体制가 아니면 分断하는 편이 더 좋다.」는 의견이 多数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自由民主体制에 대한 確信度가 강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으나 現在의 地位를 유지할수 있다면 統一이 안되도 좋다는 指導勢力의 利己性을 反映한 것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関心을 가질만 하다.

② 「統一이 된다면」이라는 前提下에서도 共産体制도 좋다는 意見은 전혀 없다시피 한바 이것은 反共風土가 知識人社会에서 全国化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鼓舞的인 事実이다.

그러나 「어떤 体制도 좋다」는 6.5%는 反体制的인 応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潜在的 反体制勢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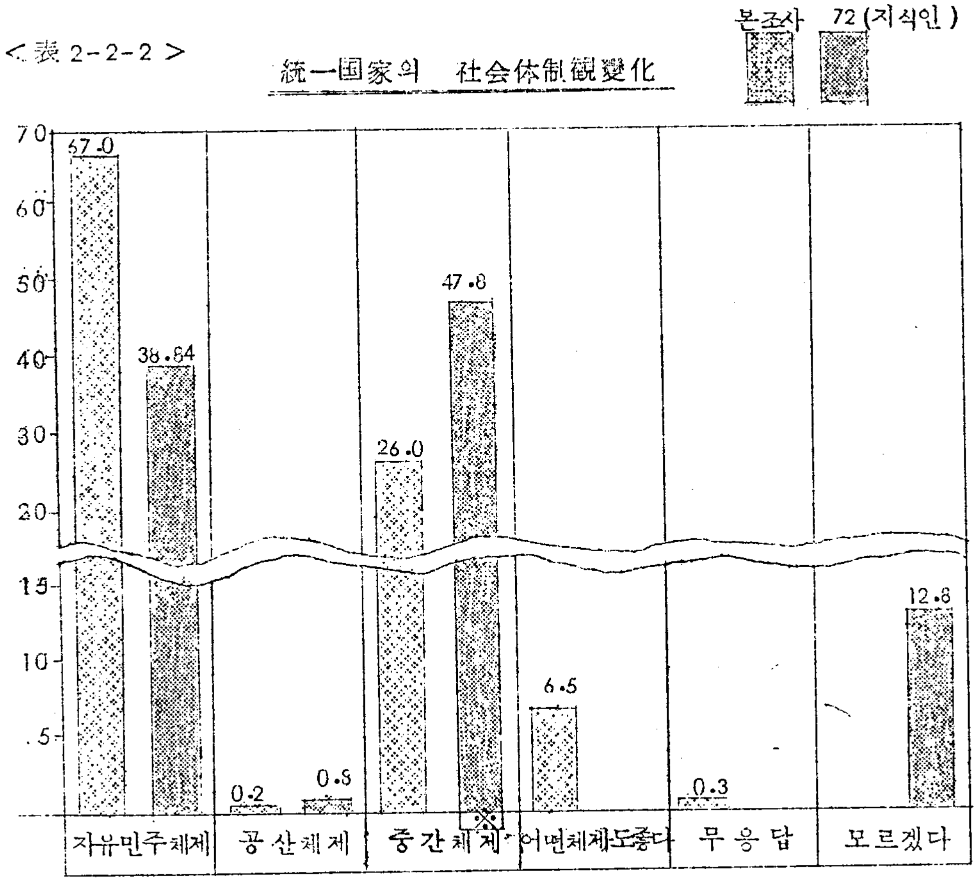
이 知識人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4分의 1以上이 統一이 된다면 中間体制도 받아 들이겠다는 意見表示를 하고 있다. 이것은 中立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統一方案과 統一後의 巨視的 国家計劃 및 統一前의 弘報政策에 적지 않은 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今番의 調査를 72年의 그것과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2-2-2>

統一国家의 社会体制観變化



※ 표는 중립국가, 연립국가의 합한것임.

앞의 表에서 보듯이 自由民主体制에 대한 信念的 強度는 72年 調査時의 大学学歴者의 경우 38.84% 이던 것이 67.0%라는 큰 数로 늘어 났다.

이런 結果는 設問自体의 變化때문인 점도 적지 않을것 같다. 72年의 경우는 中立(中間)과 더불어 聯邦(聯立)도 答項에 제시했기 때문에 聯立에 答한 者가 20.64%가 있었던 것이다. 中間体制에 대한 贊成率은 昨年(26.91%)과 今年(26.0%)이 비슷했고 共産体制贊成率도 72年의 0.76%와 73年의 0.2%라는 비슷한 率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한 自由民主体制를 固守하여야 하겠다는 意見의 增大는 統一의 困難性 增大(対話에서의 北韓態度에서 派生된)와 관련이 있을듯 하다.

한편 所屬別로 본 意見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2-2-3>

統一国家의 社会体制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민주체제	108	59.02	151	69.91	103	73.57	35	66.04	5	62.50
공산체제도 좋다	1	0.55								
중간체제도 좋다	53	28.96	54	25.00	33	23.57	13	24.53	3	37.50
어떤체제도 좋다	20	10.93	11	5.09	4	2.86	4	7.55		
무응답	1	0.55					1	1.89		

統一国家의 사회체제

表 2-2-4 <직업별>

구분 / 비율		자유민주체제	공산체제도 좋다	중간체제도 좋다	어떤체제도 좋다	무응답
대학생	명	83	1	46	20	-
	%	55.33	1.67	30.67	13.33	-
교육자	명	79	-	27	3	1
	%	71.82	-	24.55	2.73	0.91
법조인	명	40	-	5	2	-
	%	85.11	-	10.64	4.26	-
문화예술인	명	34	-	10	3	-
	%	72.34	-	21.28	6.38	-
의사	명	37	-	8	2	-
	%	78.72	-	17.02	4.26	-
언론인	명	31	-	15	2	-
	%	64.58	-	31.25	4.17	-
공무원	명	68	-	30	5	-
	%	66.02	-	29.13	4.85	-
경제인	명	30	-	15	2	1
	%	62.50	-	31.25	4.17	2.08

<表 2-2-5> 統一国家의 사회체제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자유민주체제	251	68.2	82	57.7	44	75.9	25	78.1
공산체제도 좋다	-	-	-	-	1	1.7	-	-
중간체제도 좋다	95	25.8	44	31.0	10	17.2	7	21.9
어떤체제도 좋다	21	5.7	16	11.3	2	3.4	-	-
무응답	1	0.3	-	-	1	1.7	-	-

<表 2-2-6> 統一国家의 사회체제

<이산가족여부>

구분 \ 비율	월남가족		월북가족		해상없음	
	명	%	명	%	명	%
자유민주체제	49	67.1	3	50.0	350	67.2
공산체제도 좋다	-	-	1	16.7	-	-
중간체제도 좋다	16	21.9	1	16.7	139	26.7
어떤체제도 좋다	8	11.0	1	16.7	30	5.8
무응답	-	-	-	-	2	0.4

앞의 表들에서 나타난 統一国家의 社会体制観의 特徵을 요약하여 보자.

① 20代의 自由民主体制에 대한 確信度가 얕다. 最大値인

40代의 73.6%에 비하여 20代는 59.0%의 비율밖에는 안된다. 따라서 自由民主体制에 대한 反応도 높으며 本調査의 유일한 共産体制에 대한 反応도 이 20代에서 나왔다. 아마도 操急한 統一意欲과 6.25未経験이 이런 結果를 낳게 했을 것이다.

② 自由民主体制固守指向은 法曹人(85.1%)과 医師(78.7%)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最少値는 学生(55.3%)과 経済人(62.5%)에게서 나타났다.

이것은 生活安定度와도 관련되는듯 하다. 그에 따라 非自由民主体制指向性은 反対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③ 地域的으로 中都市인 光州(75.9%)와 春川(78.1%)이 保守性이 강하며 釜山의 경우는 57.7%만이 自由民主体制指向이다. 統一이 된다면 自由民主体制가 아니어도 좋다는 意見이 釜山에서는 무려 42.3%나 된다는 점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④ 越北家族의 경우가 自由民主体制指向性이 가장 낮아서 50% 즉 半数밖에 안된다. 이것은 越南家族이나 非離散家族의 67.1%와 67.2%에 비하면 훨씬 적은바 注目할만 하다.

第3節 平和냐 統一이냐

統一이냐 平和냐의 両者択一을 要求하는 質問으로 「統一과 平和가 矛盾対立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統一執着性과 平和執着性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는바 그 反応은 다음과 같았다.

<表2-3-1>

평화와 통일 (전체)

비율 / 구분	통일안되도 전쟁 없어야	전쟁있어도 통일돼야	아무래도좋다	무 응 답
명	453	139	7	1
%	75.5	23.2	1.2	0.2

앞의 表2-3-1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보자

① 統一이 안되드라도 戰爭은 없어야 한다는 사람이 75.5% 즉 3分의 2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知識人의 大部分은 平和的 方法의 統一을 추구하고 있으며 平和를 위해서는 民族分断의 苦痛도 甘受하겠다는 뜻을 反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統一方案模索에도 간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② 戰爭이 있드라도 統一은 꼭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23.2%에 이른다. 이 意見은 積極的 統一論, 統一必成論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統一에 대한 積極性은 이들로 부터 나온다고 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過度要求도 이들로부터 나온다고 할수 있다. 물론

앞에서도 보았듯이 武力統一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平和方法이 統一을 해결할수 없을 때는 武力도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表 2-3-2>

평 화 와 통 일

(연령별)

구분 / 비율		통일안돼도 전쟁없어야	전쟁있어도 통일돼야	아무래도좋다	무 응 답
20 대	명	123	56	4	-
	%	67.21	30.60	2.19	-
30 대	명	163	52	1	-
	%	75.46	24.07	0.46	-
40 대	명	112	25	2	1
	%	80.00	17.86	1.43	0.71
50 대	명	47	6	-	-
	%	88.68	11.32	-	-
60 대	명	8	-	-	-
	%	100.00	-	-	-

<表 2 - 3 - 3 >

평 화 와 통 일

(직업별)

비율 \ 구분		통일안돼도 전쟁없어야	전쟁있어도 통일돼야	아무래도좋다	무 응 답
대 학 생	명	96	50	4	–
	%	64.00	33.33	2.67	–
교 육 자	명	94	16	–	–
	%	85.45	14.55	–	–
법 조 인	명	38	9	–	–
	%	80.85	19.15	–	–
문화 예술인	명	41	6	–	–
	%	87.23	12.77	–	–
의 사	명	36	10	1	–
	%	76.60	21.28	2.13	–
언 론 인	명	41	7	–	–
	%	85.42	14.58	–	–
공 무 원	명	71	30	1	1
	%	68.93	29.13	0.97	0.97
경 제 인	명	36	11	1	–
	%	75.00	22.92	2.08	–

<表 2-3-4>

평화와통일

<지역별>

비율 / 구분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통일안돼도전쟁없어야	297	75.8	107	75.4	40	69.0	27	84.4
전쟁있어도통일돼야	83	22.6	34	23.9	17	29.3	5	15.6
아무래도 좋다	5	1.4	1	0.7	1	1.7	-	-
무응답	1	0.3	-	-	-	-	-	-

<表 2-3-5>

평화와 통일

<이산가족여부>

비율 / 구분	월남가족		월북가족		해당없음	
	명	%	명	%	명	%
통일안돼도전쟁없어야	53	72.6	6	100.0	394	75.6
전쟁있어도통일돼야	18	24.7	-	-	121	23.2
아무래도 좋다	2	2.7	-	-	5	1.0
무응답	-	-	-	-	1	0.2

平和와 統一関係觀에 관한 階層別 反応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자.

① 高令層일수록 統一은 안돼도 戰爭은 없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고 있다.

60代는 全員이 이에 賛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戰爭을 経驗한 年代와 그렇지 않은 年代, 現実参与度가 높은 年代와 그렇지 않은 年代間의 経驗 및 地位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② 職業別로 볼 때는 大学生 (33.3%)과 公務員 (29.1%)이 戰爭不辞觀을 많이 가지고 있고 教育者 (14.5%)와 文化芸術人 (12.8%)이 가장 적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③ 地域的으로는 戰爭없어야 한다는 意見이 春川에서 가장 많은 84.4%이고 서울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인 75.8%이다.

이런 現象이 나타난 것은 休戰線에 가까운 地域民이 戰爭危險이 더 크기 때문인듯 하다

④ 越北家族 100%가 統一없드라도 戰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階層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第 4 節　不統一要素

統一이 안되는 責任要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함으로써 分斷責任에 대한 것과의 關係를 把握하고자 하였는바 그 結果는 다음 表 2-4-1 과 같았다.

<表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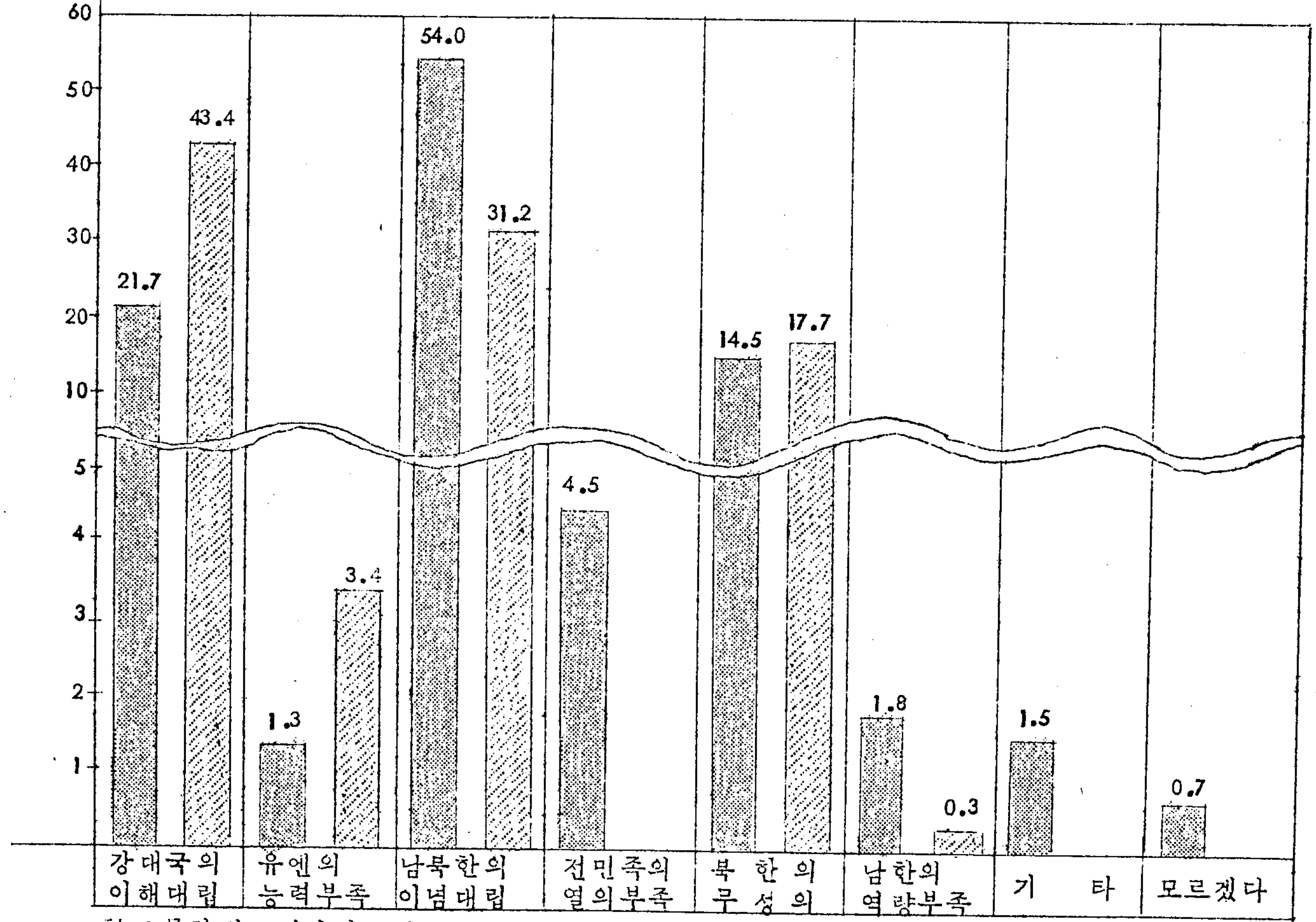
不統一要素 (전 체)

区分 \ 比率	本調査		72 (知識人)	
	名	%	名	%
강대국의 이해대립	130	21.7	284	43.4
유엔의 능력부족	8	1.3	22	3.4
남북한의 이념대립	324	54.0	204	31.2
전민족의 열의부족	27	4.5		
북한의 무성의	87	14.5	116	17.7
남한의 역량부족	11	1.8	2	0.3
기 타	9	1.5		
모르겠다.	4	0.7		

주 : 문항상 차이가 있음.

別表 不統一要素 (전 체)

본조사 72 (知識人)



註 : 문항상 차이가 있음.

앞의 表에서 보듯이

① 南北韓의 理念対立을 不統一의 最大理由로 들고 있는바 이것은 民族的 自法能力 또는 自責意識이 增加했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南北韓을 対比한 責任所在는 北韓이 越等히 높아서 14.5% 対 1.8%에 이르고 있다.

③ 強大国(分断責任国이기도 하다.)에게 不統一責任을 묻는 数도 적지 않아서 21.7%나 된다.

한편 이것을 72年의 大学学歴者와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変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① 強大国에게 責任을 부여한 率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즉 43.43%에서 21.7%로 줄었다. 勿論 72年의 경우는 強大国으로 一括質問치 않고 美国, 蘇聯, 中共, 4強등으로 分割하였기 때문에 比較에 完全히 適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項目과 関聯시켜 생각할 때는 分明한 変化인 것이다.

② UN의 責任은 3.36%에서 1.3%로 약간 줄었고 南韓責任은 0.31%에서 1.8%로 늘었고 北韓責任은 17.74%에서 14.5%로 줄었으나 큰 変化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南北韓 및 全民族의 責任이라는 意見은 31.19%에서 58.5%로 크게 늘었다. 이것은 対話過程에서 나타난 無進展이 知識人에게는 좋지 않게 反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으로 보인다.

理由야 어떠하든 民族問題로 또 民族의 責任으로 帰属시키려는 傾向이 늘고 있다는 것은 統一解決의 場所와 主体問題를 고려할 때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所属別로 본 不統一 責任観은 다음과 같다.

<表 2-4-2> 不統一要素 (연령별)

比率 / 区分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名	%	名	%	名	%	名	%	名	%
강대국의 이해대립	47	25.68	40	18.52	33	23.57	10	18.87	-	-
유엔의 능력부족	-	-	2	0.93	3	2.14	3	5.66	-	-
남북한의 이념대립	113	61.75	116	53.70	64	45.71	28	52.83	3	37.50
전민족의 열의부족	7	3.83	11	5.09	7	5.00	1	1.89	1	12.50
북한의 무성의	6	3.28	37	17.13	32	22.86	9	16.98	3	37.50
남한의 역량부족	7	3.83	2	0.93	-	-	2	3.77	-	-
기 타	1	0.55	6	2.78	1	0.71	-	-	1	12.50
모르겠다	2	1.09	2	0.93	-	-	-	-	-	-

<表 2-4-3 >

不統一要素 (직 업 별)

구분 \ 비율		강대국의 이해대립	유엔의 능력부족	남북한의 이념대립	전민족의 열의부족	북한의 무성의	남한의 역량부족	기 타	모르겠다
대 학 생	명	34	-	94	7	6	5	2	2
	%	22.67	-	62.67	4.67	4.00	3.33	1.33	1.33
교 육 자	명	21	3	60	8	13	3	2	-
	%	19.09	2.73	54.55	7.27	11.82	2.73	1.82	-
법 조 인	명	9	2	22	-	11	1	2	-
	%	19.15	4.26	46.81	-	23.40	2.13	4.26	-
문 화 예 술 인	명	12	-	20	2	12	1	-	-
	%	25.53	-	42.55	4.26	25.53	2.13	-	-
의 사	명	15	1	22	-	9	-	-	-
	%	31.91	2.13	46.81	-	19.15	-	-	-
언 론 인	명	8	-	27	2	9	-	-	2
	%	16.67	-	56.25	4.17	18.75	-	-	4.17
공 무 원	명	22	1	49	7	21	1	2	-
	%	21.36	0.97	47.57	6.80	20.39	0.97	1.94	-
경 제 인	명	9	1	30	1	6	-	1	-
	%	18.75	2.08	62.50	2.08	12.50	-	2.08	-

<表 2-4-4 >　　不統一要素 (지 역별)

区分 \ 比率	서울		부산		광주		춘천	
	名	%	名	%	名	%	名	%
강대국의 이해대립	77	20.9	32	22.5	16	27.6	5	15.6
유엔의 능력부족	6	1.6	-	-	2	3.4	-	-
남북한의 이념대립	197	53.5	78	54.9	29	50.0	20	62.5
전민족의 열의부족	15	4.1	8	5.6	2	3.4	2	6.3
북한의 무성의	57	15.5	20	14.1	6	10.3	4	12.5
남한의 역량부족	10	2.7	1	0.7	-	-	-	-
기타	5	1.4	2	1.4	1	1.7	1	3.1
모르겠다	1	0.3	1	0.7	2	3.4	-	-

<表 2-4-5 >　　不統一要素 (성별)

区分 \ 比率	남자		여자	
	名	%	名	%
강대국의 이해대립	112	21.7	18	21.2
유엔의 능력부족	7	1.4	1	1.2
남북한의 이념대립	267	51.8	57	67.1
전민족의 열의부족	26	5.0	1	1.2
북한의 무성의	82	15.9	5	5.9
남한의 역량부족	9	1.7	2	2.4
기타	8	1.6	1	1.2
모르겠다	4	0.8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所屬別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高齡層일수록 대체로 不統一을 北韓의 責任으로 돌리고 있는바 極端의 例는 20代의 3.3%에 대해서 60代는 37.5%가 北韓의 責任으로 생각하고 있다. 20代는 南北理念対立(61.7%)에 큰 比重을 두고 있으나 60代는 37.5%에 불과하다. 이런 現象은 戰爭経驗에서 생긴 「感情」의 작용때문인듯 하다.

② 職業的으로는 大学生과 経済人이 南北理念対立에 큰 比重을 두어 各各 62.7%와 62.5%인바 이것은 最少値인 文人과 医師의 42.55%와 46.81% 보다 훨씬 많다.

한편 北韓責任에 있어서는 大学生은 最少値인 4%인데 대해서 法曹人과 文人은 23.4%와 25.5%나 된다. 이것은 大学生이 北韓에 대해서 덜 敌意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文化芸術人이 가장 敌意的임을 뜻한다.

③ 地域的으로는 南北理念対立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春川의 62.5%로 光州의 50%보다 크게 높다.

④ 男子는 女子보다 훨씬 北韓의 責任이라고 보는 率이 높아 5.9対15.9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고 南北理念対立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는 反対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第 5 節　統一解決機関

어떤 機関을 통해서 統一問題를 다루거나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参考資料를 얻기위해서 「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機関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 2-5-1과 같다.

<表 2-5-1>　　統一解決機関 (전체)

구분 \ 비율	명	%
어떤 기구로도 불가능	76	12.7
유 엔	54	9.0
4대국의 기구	100	16.7
남북대표자 회의	178	29.7
남북조절 위원회	42	7.0
남북정상 회의	78	13.0
기 타	21	3.5
모르겠다	51	8.5

앞의 表에 나타난 特徵을 간추려 보자.

① 現在 진행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会로 統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知識人은 7%에 지나지 않으며 이 数는 가장 낮은 数이다. 이것은 調節委를 統一로의 歷程에 있어 하나의 中間的인 機関으로 보는 것인듯 하다.

즉 対話過程에서 나타난 不振状態 때문에 調節委로는 統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② 南北頂上会議와 南北政府代表者 会議를 가져야 統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합해서 42.7%나 된다.

③ 統一이 不可能하다고 보는 意見이 統一方案을 물었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統一方案을 물었을 때는 13.7%이고 본설문에서는 12.7%임)

④ 外国 또는 UN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機関은 합해서 25.7%에 지나지 않는다. UN監視下의 統一에 42.3%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이 解決機関이라고 보는 사람은 9%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UN은 統一의 方便(手段)일 뿐이지 統一의 主体와 主導体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所属別 反応을 보면 다음의 表들과 같다.

<表 2-5-2>

統一解決機関 <연령별>

구 분 \ 비 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어떤기구도 불가능	19	21.31	25	11.57	9	6.43	3	5.66		
유 엔	9	4.92	22	10.19	17	12.14	6	11.32		
4대국의 기구	23	12.57	34	15.74	29	20.71	13	24.53	1	12.50
남북대표자 회의	60	32.79	64	29.63	41	29.29	11	20.75	2	25.00
남북조절 위원회	10	5.46	17	7.87	8	5.71	5	9.43	2	25.00
남북정상 회의	18	9.84	30	13.89	22	15.71	7	13.21	1	12.50
기 타	8	4.37	5	2.31	4	2.86	2	3.77	2	25.00
모르겠다	16	8.74	19	8.80	10	7.14	6	11.32		

<表 2-5-3 >

統 一 解 決 機 関

<직업별>

구분 / 비율		어떤기구도 불가능	유엔	4대국 의기구	남북대표자회의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정상회의	기타	모르겠다
대학생	명	33	7	16	50	9	14	9	12
	%	22.00	4.67	10.67	33.33	6.00	9.33	6.00	8.00
교육자	명	14	10	16	36	3	16	4	11
	%	12.73	9.09	14.55	32.73	2.73	14.55	3.64	10.00
법조인	명	3	2	6	13	9	11	2	1
	%	6.38	4.26	12.77	27.66	19.15	23.40	4.26	2.13
문화·예술인	명	7	4	5	12	3	8	2	6
	%	14.89	8.51	10.64	25.53	6.38	17.02	4.26	12.77
의사	명	4	5	16	7	5	6	2	2
	%	8.51	10.64	34.04	14.89	10.64	12.77	4.26	4.26
언론인	명	4	5	7	17	5	5	1	4
	%	8.33	10.42	14.58	35.42	10.42	10.42	2.08	8.33
공무원	명	7	13	18	35	5	14	1	10
	%	6.80	12.62	17.48	33.98	4.85	13.59	0.97	9.71
경제인	명	4	8	16	8	3	4		5
	%	8.33	16.67	33.33	16.67	6.25	8.33		10.42

<表 2-5-4> **統一解決機関**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어떤기구도불가능	46	12.5	10	7.0	13	22.4	7	21.9
유엔	39	10.6	9	6.3	2	3.4	4	12.5
4대국 기구	60	16.3	23	16.2	11	19.0	6	18.8
남북대표자 회의	108	29.3	50	35.2	11	19.0	9	28.1
남북조절 위원회	20	5.4	15	10.6	5	8.6	2	6.3
남북정상 회의	50	13.6	19	13.4	8	13.8	1	3.1
기타	15	4.1	5	3.5	1	1.7		
모르겠다	30	8.2	11	7.7	7	12.1	3	9.4

앞에 나타난 所屬別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젊은 層일수록 統一諦念論者가 많아 50代의 5.66%대 20代의 21.3%의 비율이다. 또한 南北代表者会議 또는 民族会議에 대한 贊成率이 50代의 20.75%에 대해 20代는 32.79%나 된다. 그러나 UN에 의한 統一解決主張에 대해서는 20代의 경우 4.92%인데 대해 50代는 11.32%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② 職業으로 본 特徵에 있어 첫째는 大学生과 法曹人의 UN期待率은 4.67%와 4.26%인데 經済人과 公務員은 16.67%와 12.62%나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經済人과 医師는 4強依存性이 강하여 33.3%와 34.0%나 되는데 대하여 大学生과 文化芸術人은 10.67%와 10.64%에 불과하다. 세째는 民族 및 代表者会議에 의한 解決을 주장하는 率은 公務員(33.98)과 言論人(35.42%)에서 많이 나왔고 南北頂上会談제의는 法曹人에서 가장 많아 23.4%나 된다.

第 6 節 統一時期予測

統一時期에 대한 予測은 統一에 대한 期待感을 측량할수 있는 하나의 基準이 될것이며 操急하게 생각하느냐의 与否를 밝힐수 있다. 이런 뜻에서 「언제쯤 統一이 될것으로 보느냐」는 設問을 설정했는바 그 反応은 다음 表 2-6-1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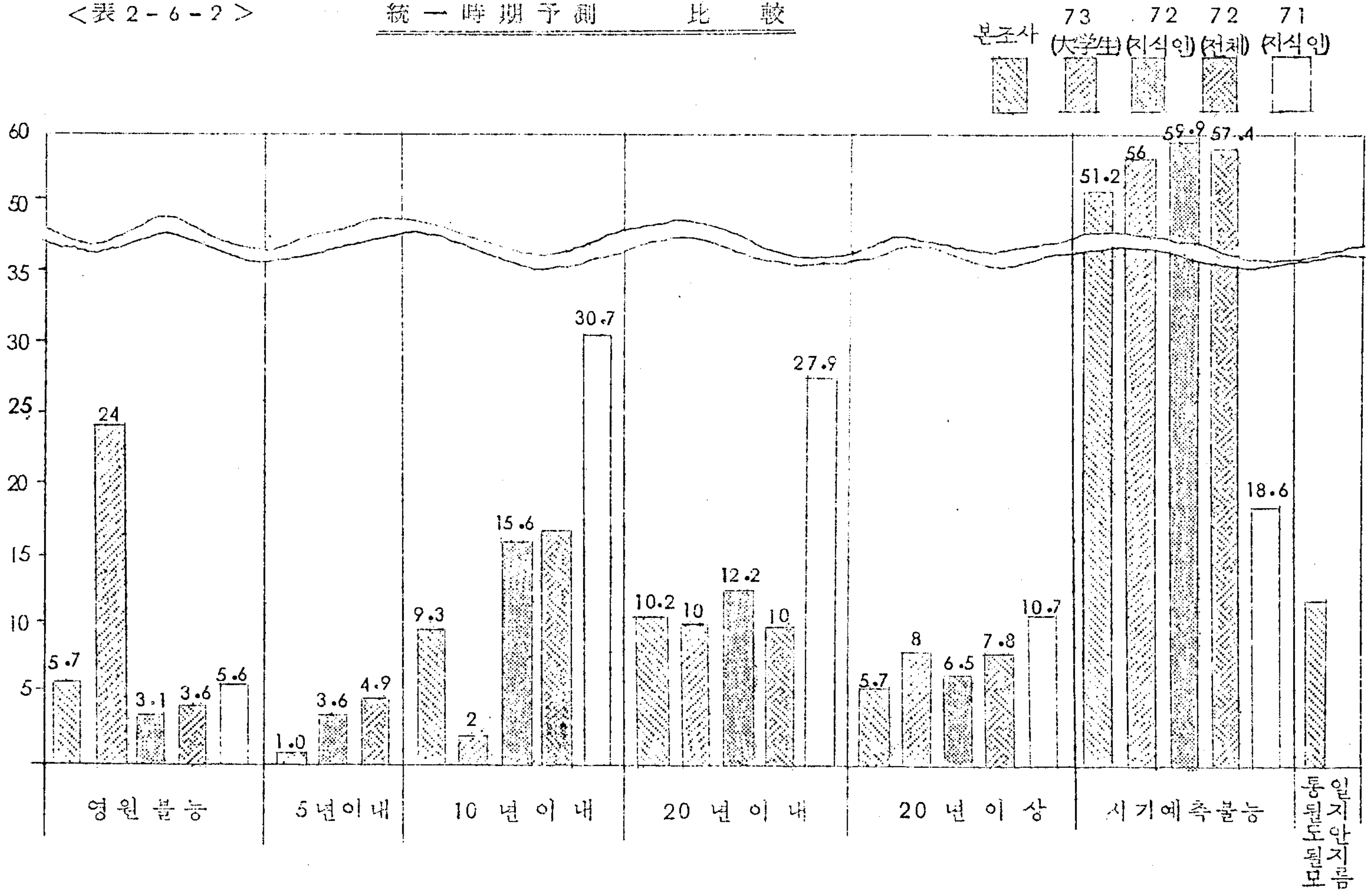
<表 2-6-1> 統 一 時 期 (전 체)

구 분 \ 비 율	명	%
영원불능	34	5.7
5년 이내	6	1.0
10년 이내	56	9.3
20년 이내	61	10.2
30년 이내	19	3.2
30년 이상	15	2.5
시기 예측 불능	307	51.2
통일될지 안될지 모름	102	17.0

앞의 表 2-6-1에서 보듯이 予測不能이라는 反応이 大部分 (51.2%)이고 統一이 될지 또는 안될지도 모른다는 대답이 17% 나 된다. 즉 68.2%라는 大部分의 知識人은 統一自体 또는 統一時期에 대한 判断을 할수 없다고 自認하고 있는 것이다. 時期 予測을 한 사람은 26.2%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前의 調査와 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 2 - 6 - 2 > 統一時期予測 比較



앞의 表에 나타나있는 것에서 특징적인 것을 간추려 보자.

① 통일이 가까운 時期에 이룩될 것이라고 보는 数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知識人의 경우 10年内 統一이 71年에는 33.5%이었으나 72年에는 18.4%로 줄었고, 6月의 大学生調査에서는 2%, 本調査에서는 10.3%로 줄었다.

統一이 곧 되기 어렵다는 思考가 增大하게 된것은 南北対話의 実績과 国際情勢 및 操急統一觀을 갖지 않게하려는 그동안의 政府弘報등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듯하다.

② 統一이 영원히 不可能하다고 보는 知識人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6.23宣言이 있기直前(南北対話는 不振하고 어떤 다른 打開案도 없었던 때)의 大学生反応에서는 더욱 그러했지만(24%) 本調査도 昨年보다는 統一諦念論者의 增大를 보이고 있다.

한편 所属别 反応을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2-6-3> 統 一 時 期

(연령별)

비율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영원불능	22	12.02	9	4.17			3	5.66		
5년이내			2	0.93			3	5.66	1	12.50
10년이내	6	3.28	24	11.11	17	12.14	4	7.55	5	62.50
20년이내	16	8.74	24	11.11	16	12.86	3	5.66		
30년이내	8	4.37	8	3.70	2	1.43	1	1.89		
30년이상	7	3.83	5	2.31	3	2.14				
시기예측불능	85	46.45	102	47.22	87	62.14	32	60.38	1	12.50
통일될지안될지모름	39	21.31	42	19.44	13	9.29	7	13.21	1	12.50

<表 2－6－4> 統 一 時 期 (직업별)

구분 / 비율		영원 불능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사기예측 불능	통일될지 안될지모름
대학생	명	17		4	10	4	6	77	32
	%	11.33		2.67	6.67	2.67	4.00	51.33	21.33
교육자	명	6		11	14	6	3	57	13
	%	5.45		10.00	12.73	5.45	2.73	51.82	11.82
법조인	명		1	7	3	2	2	25	7
	%		2.13	14.89	6.38	4.26	4.26	53.19	14.89
문화예술인	명	2	4	4	2			28	7
	%	4.26	8.51	8.51	4.26			59.57	14.89
의사	명	2		3	4	3		29	6
	%	4.26		6.38	8.51	6.38		61.70	12.77
언론인	명	2		4	6	1	1	22	12
	%	4.17		8.33	12.50	2.08	2.08	45.83	25.00
공무원	명	4	1	19	21	2	3	40	13
	%	3.88	0.97	18.45	20.39	1.94	2.91	38.83	12.62
경제인	명	1		4	1	1		29	12
	%	2.08		8.33	2.08	2.08		60.42	25.00

<表2 - 6 - 5> 統 一 時 期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영원불능	23	6.3	7	4.9	3	5.2	1	3.1
5 년이내	4	1.1	2	1.4				
10 년이내	25	6.8	20	14.1	8	13.8	3	9.4
20 년이내	42	11.4	14	9.9	4	6.9	1	3.1
30 년이내	8	2.2	6	4.2	3	5.2	2	6.3
30 년이상	9	2.4	4	2.8	1	1.7	1	3.1
시기예측 불능	192	52.2	70	49.3	29	50.0	16	50.0
통일될지안될지 모름	65	17.7	19	13.4	10	17.2	8	25.0

앞의 表들에서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간추릴수 있다.

① 高令層일수록 早期統一을 予想하고 있다. 20代는 10年까지 統一될 것으로 보는 率이 3.28%에 불과하나 40代는 12.14%, 50代는 18.87%, 60代는 75%에 이르고 있다. 또한 青年層일수록 予測不能 및 沒理解率이 높다.

② 職業에 따르는 反応上의 差異는 별로 크지 않으나 医師의 D.K率이 가장 높고 公務員의 D.K率이 가장 적어 61.7%+12.77=74.47%대 51.45%(38.83+12.62)의 比率이다.

③ 地域이 統一時期予測에 거의 影響을 주지않고 있으나 休戰線에 近接한 春川과 서울보다 釜山과 光州사람은 統一이 早期에 実現될 것으로 楽觀하는 率이 높다.

第 7 節　統一実現順序

南北対話가 진행되는 동안에 南과 北의 가장 두드러진 基本的 見解差는 統一段階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知識人의 意見을 알기위해서 「統一을 이루는데 있어 어떤 順序로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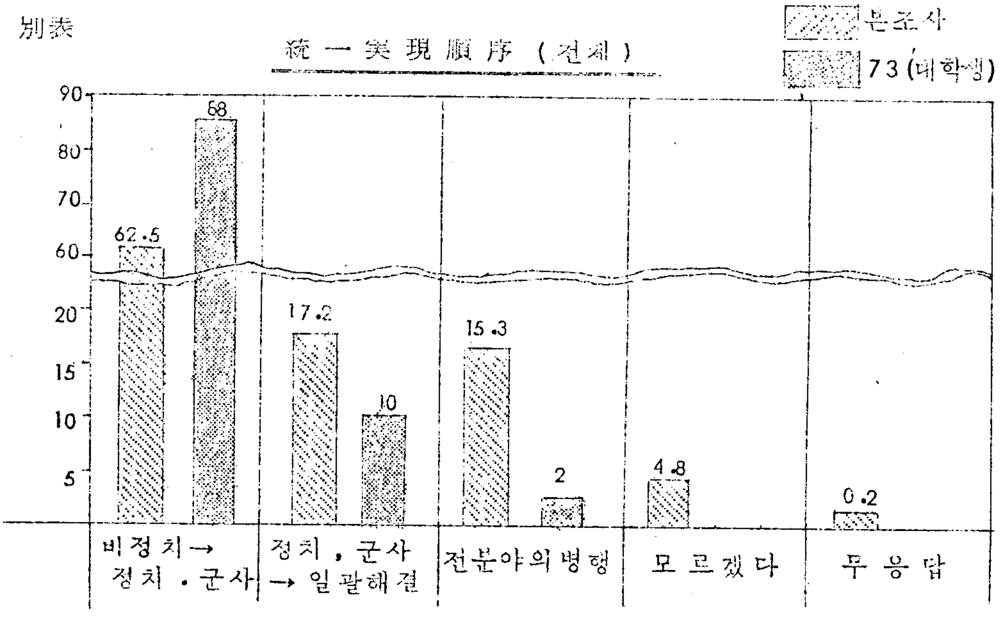
<表 2 - 7 - 1>　統一実現順序

(전체)

구분	본조사 명	본조사 %	73 (대학생) 명	73 (대학생) %
비정치 →정치, 군사	375	62.5	88	88
정치, 군사→일괄해결	103	17.2	10	10
전분야의 병행	92	15.3	2	2
모르겠다	29	4.8		
무응답	1	0.2		

別表

統一実現順序 (전체)



앞의 表에서 보듯이 過半数인 62.5%가 우리 政府의 接近法인 非政治分野의 先決論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主張하는 것에 대한 同調도 무시할수 없는 数가 나오고 있다.

6月의 大学生調査時는 政治先決論에 10%同調였으나 이번에는 약간 上廻한 17.2%에 이르고 있으며 全分野一括解決論에 대해서도 2%에서 15.3%로 늘었다. 이는 主로 6月 調査의 問項配列때문에 나타난 結果라고 하겠으나 6.23宣言의 影響이 있었을 可能性도 있다.

한편 所属別로 본 統一段階觀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2-Z-2> 統一實現順序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명	20대 %	30대 명	30대 %	40대 명	40대 %	50대 명	50대 %	60대 명	60대 %
비정치 → 정치, 군사	107	58.47	130	60.19	100	71.43	34	64.15	4	50.00
정치, 군사 → 일괄해결	37	20.22	43	19.91	18	12.86	5	9.43		
전분야의 병행	34	18.58	31	14.35	17	12.14	9	16.98	1	12.50
모르겠다	4	2.19	12	5.56	5	3.57	5	9.43	3	37.50
무응답	1	0.55								

<表 2-7-3> **統一實現順序**

(직업별)

비율 \ 구분		비정치→ 정치, 군사	정치, 군사 →일괄해결	전분야의 병행	모르겠다	무응답
대학생	명	88	28	29	4	1
	%	58.67	18.67	19.33	2.67	0.67
교육자	명	70	15	15	10	
	%	63.64	13.64	13.64	9.09	
법조인	명	32	7	6	2	
	%	68.09	14.89	12.77	4.26	
문화예술인	명	33	5	5	4	
	%	70.21	10.64	10.64	8.51	
의사	명	25	9	8	5	
	%	53.19	19.15	17.02	10.64	
언론인	명	34	6	7	1	
	%	70.83	12.50	14.58	2.08	
공무원	명	66	20	15	2	
	%	64.08	19.42	14.56	1.94	
경제인	명	27	13	7	1	
	%	56.25	27.08	14.58	2.08	

<表 2 - 7 - 4> **統一実現順序**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비정치 → 정치, 군사	227	61.7	82	57.7	47	81.0	19	59.4
정치, 군사 → 일괄해결	67	18.2	26	18.3	4	6.9	6	18.8
전분야의 병행	56	15.2	27	19.0	5	8.6	4	12.5
모르겠다	17	4.6	7	4.9	2	3.4	3	9.4
무응답	1	0.3						

<表 2 - 7 - 5> **統一実現順序**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비정치 → 정치, 군사	332	64.5	43	50.6
정치. 군사 → 일괄해결	89	17.3	14	16.5
전분야의 병행	69	13.4	23	27.1
모르겠다	24	4.7	5	5.9
무응답	1	0.2		

앞의 表들에서 나타난 所屬別 統一段階觀을 간추려 보자

① 年令別로 볼때 30代가 政府의 接近方法에 가장 동조하지 않아 60.19%이며 北韓主張에 동조하는 率은 젊은 층일수록 늘어 20代는 50代의 9.43%에 대해 20.22%나 된다. 또한 高令層일수록 D.K率이 높아 20代는 2.19%인데 대해 60代는 37.5%나된다.

② 言論 및 文化芸術人이 우리측 案에 가장 同調的이어서 70.83%와 70.21%인데 대해서 가장적은 率은 経済人의 56.25%와 医師의 53.19%이다.

③ 地域이 統一段階觀에 큰 영향을 주는것같지는 않으나 우리측에 동조적인 것이 光州에서 가장 많아 81.0%이고 가장 非同調的인 것은 釜山에서 가장 많아 57.7%이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우리측방식에 더 동조적이다.

第 2 章　統一과 관련된 情勢觀

第2章　統一과관련된情勢觀

第1節　UN(美)軍撤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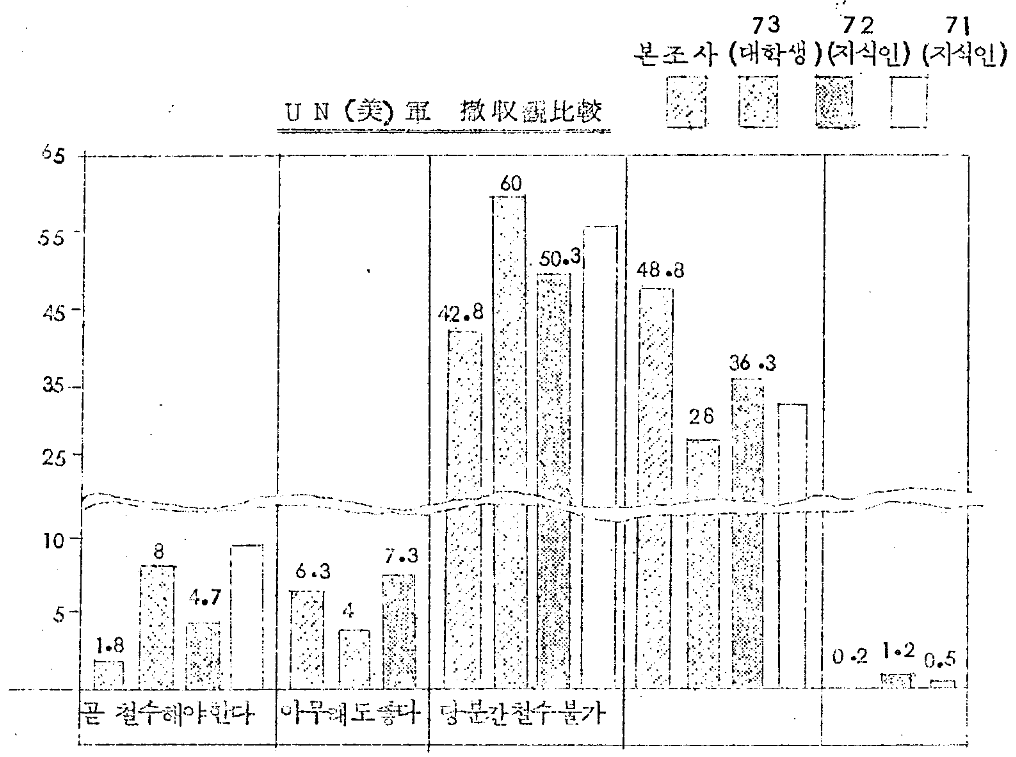
安保觀 또는 民族主義의 性格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뜻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美軍撤收問題에 대한 意見을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表3-1-1>

UN軍 撤收(全体)

구분 \ 비율	명	%
곧철수해야함	11	1.8
아무래도좋다	38	6.3
당분간철수불가	257	42.8
통일시까지철수불가	293	48.8
모르겠다	1	0.2

<表 3-1-2>



앞의 表들에 나타난 駐韓美軍의 撤收問題에 대한 知識人의 意見을 간추려 보자.

① 撤收에 대해서 비록 時間的 差가 있기는 하나 大部分이 반대하고 있다. 이는 韓半島에 완전한 平和가 깃들지 않았다고 知識人이 생각하고 있다는 反証이기도 하다.

② 지난번의 모든 調査에서는 当分間 駐屯을 希望하는 数가 統一時까지 駐屯希望者보다 많았으나 이번의 調査에서는 그 反対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月調査(大学生)때의 것과는 큰 対照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가 생긴것은 다음의 이유때문인듯 하다.

本調査의 対象은 社会指導者에 限定했으나 71年과 72年에는 大学学歴者에 대한 調査였고 6月의 것은 大学在学生만의 것이었기 때문인듯 하다.

附属別로 美軍撤収에 대한 意見反応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 - 1 - 3>

UN군 철수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곧 철수해야함	8	4.37	–	–	2	1.43	1	1.89	–	–
아무래도 좋다	9	4.92	14	6.48	9	6.43	2	3.77	4	50.00
당분간철수불가	85	46.45	97	44.91	53	37.86	22	41.51	–	–
통일시까지철수불가	80	43.72	105	48.61	76	54.29	28	52.83	4	50.00
모르겠다	1	0.55	–	–	–	–	–	–	–	–

<表3-1-4>

UN軍 撤 收 (직업별)

구분 \ 비율		곧 철수 해야함	아무래도 좋다.	당분간 철수불가	통일시 까지 철수불가	모르겠다
대학생	명	5	7	73	64	1
	%	3.33	4.67	48.67	42.67	0.67
교육자	명	-	9	51	50	-
	%	-	8.18	46.36	45.45	-
법조인	명	-	3	20	24	-
	%	-	6.38	42.55	51.06	-
문화 예술인	명	2	6	17	22	-
	%	4.26	12.77	36.17	46.81	-
의사	명	2	7	6	32	-
	%	4.26	14.89	12.77	68.09	-
언론인	명	-	1	22	25	-
	%	-	2.08	45.83	52.08	-
공무원	명	1	1	48	53	-
	%	0.97	0.97	46.60	51.46	-
경제인	명	1	4	20	23	-
	%	2.08	8.33	41.67	47.92	-

<表3-1-5>

UN군 철 수 (지역별)

구 분 \ 비 율	서 울		부 산		광 주		춘 천	
	명	%	명	%	명	%	명	%
곧 철수해야함	6	1.6	3	2.1	2	3.4	–	–
아무래도 좋다	21	5.7	12	8.5	4	6.9	1	3.1
당분간철수불가	149	40.5	63	44.4	29	50.0	16	50.0
통일시까지철수불가	191	51.9	64	45.1	23	39.7	15	46.9
모 르 겠 다	1	0.3	–	–	–	–	–	–

<表3-1-6>

UN군 철 수 (성별)

구 분 \ 비 율	남 자		여 자	
	명	%	명	%
곧 철수해야함	7	1.4	4	4.7
아무래도좋다	29	5.6	9	10.6
당분간철수불가	219	42.5	38	44.7
통일시까지철수불가	259	50.3	34	40.0
모 르 겠 다	1	0.2	–	–

앞의 表에서 나타난 UN軍撤收問題에 대한 附屬別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수 있다.

① 高令層일수록 統一時까지 駐屯해야 한다는 比率이 높아 20代의 43.7%에 대해 40代와 50代는 54.3%와 52.8%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高令層일수록 統一보다는 韓半島의 平和를 더 바란다는 事実과 관련시켜 볼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② 大学生은 다른 階層보다 統一時까지의 駐屯希望率은 적고(医師의 68.1%에 비해 42.7%)当分間駐屯을 바라는 率은 높다. 当分間 駐屯希望率은 大学生의 경우 敎育者와 함께 最高値를 보여 46.4%와 48.7%(大学生)인데 대해서 医師의 경우는 12.8%에 불과하다. 医師가 生活上 가장 安定된 知識人이라는 점에서 平和를 확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美軍駐屯을 가장 長期間 바라는것 같다.

③ 地域의 応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項目이었는데 休戰線에 近接한 春川 및 서울과 그렇지 않은 釜山 및 光州는 큰 差를 보이고 있다. 즉 「곧 撤收해야 한다」는 反応이 春川에서는 全無하고 서울도 釜山과 光州보다 적다. 또한 統一時까지의 駐屯을 光州에서는 39.7%가 원하지만 서울은 51.9%나 된다. 이런 結果는 아마도 休戰線에 近接한 地域의 知識人이 그렇지 않은 곳의 사람보다 安保에 대한 不安感을 더 가졌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美軍의 長期駐屯을 바라고 있는바 그것은 男子가 女子의 경우보다 「安保」에 더 関心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第 2 節　四強接近과　統一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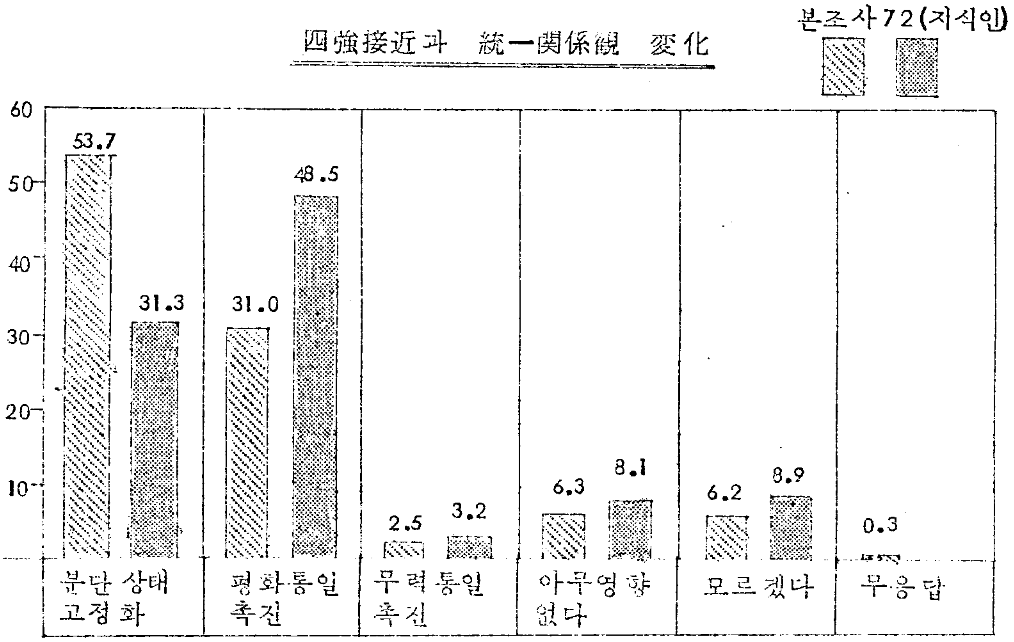
最近 數年間 韓半島를 둘러싸고 우리와 利害関係를 가지고 있는 美国, 蘇聯, 中共, 日本등의 接触이 活潑해지고 있어서 이것이 韓民族運命에 어떤 影響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뜻에서 「四強의 接近이 統一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이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 表 3-2-1 과 같다.

<表 3-2-1>

四強接近과 統一 (전체)

비율 / 구분	명	%
분단상태의 고정화	322	53.7
평화통일의 촉진	186	31.0
무력통일의 촉진	15	2.5
아무영향도 없다	38	6.3
모르겠다	37	6.2
무 응 답	2	0.3

<表 3-2-2 >



앞의 表 3-2-1 과 같이 大部分의 知識人은 四強接近이 分斷의 固定化를 초래 (53.7 %) 한다고 보고 있고 統一을 促進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33.5 % (그중에서 무력통일촉진이 2.5 %) 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昨年에 調査된 것과 比較해 볼때 두드러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昨年에는 統一을 促進 (武力統一促進의 3.2 % 包含) 할 것으로 본 知識人이 過半數인 51.7 %이었는데 今年에는 分斷 固定化에 過半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現象은 昨年 9月 南北対話가 순조롭게 進行될 때의 狀況과 그렇지 못한 狀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各 所屬別로 提示해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2-3 >

四強接近과 統一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분단상태 고정화	117	63.93	119	55.09	63	45.00	21	39.62	2	25.00
평화통일촉진	36	19.67	67	31.02	54	38.57	23	43.40	6	75.00
무력통일촉진	8	4.37	2	0.93	4	2.86	1	1.89	-	-
아무영향도 없다	15	8.20	12	5.56	8	5.71	3	5.66	-	-
모르겠다	7	3.83	14	6.48	11	7.86	5	9.43		-
무응답	-	-	2	0.93	-	-	-	-		-

<表 3-2-4 >

四強接近과 統一 (직업별)

비율 \ 구분		분단상태의 고정화	평화통일의 촉진	무력통일의 촉진	아무영향도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대학생	명	99	27	6	12	6	-
	%	66.00	27.00	4.00	8.00	4.00	-
교육자	명	62	34	2	6	6	-
	%	56.36	30.91	1.82	5.45	5.45	-
법조인	명	22	18	2	4	1	-
	%	46.81	38.30	4.26	8.51	2.13	-
문화예술인	명	27	15	1	1	3	-
	%	57.45	31.91	2.13	2.13	6.38	-
의사	명	10	24	1	6	6	-
	%	21.28	51.06	2.13	12.77	12.77	-
언론인	명	23	19	-	2	2	2
	%	47.92	39.58	-	4.17	4.17	4.17
공무원	명	53	32	2	5	11	-
	%	51.46	31.07	1.94	4.85	10.68	-
경제인	명	26	17	1	2	2	-
	%	51.17	35.42	2.08	4.17	4.17	-

<表 3-2-5 >

四強接近과 統一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분단상태의 고정화	194	52.7	67	47.2	44	75.9	17	53.1
평화통일의 촉진	113	30.7	54	38.0	8	13.8	11	34.4
무력통일의 촉진	9	2.4	5	3.5	1	1.7	-	-
아무영향도 없다.	27	7.3	9	6.3	1	1.7	1	3.1
모르겠다	25	6.8	7	4.9	3	5.2	2	6.3
무응답	-	-	-	-	1	1.7	1	3.1

< 3-2-6 >

四強接近과 統一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분단상태의 고정화	273	53.0	49	57.6
평화통일의 촉진	169	32.8	17	20.0
무력통일의 촉진	9	1.7	6	7.1
아무영향도 없다.	29	5.6	9	10.6
모르겠다.	33	6.4	4	4.7
무응답	2	0.4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所屬別 反応에 큰 差가 있는바이를 간추려 보자.

① 高令일수록 四強接近이 分断固定化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率이 적어서 20代의 경우 63.9%인 것이 50代는 39.6%, 60代는 25%에 불과하며 또한 平和統一이 促進될 것으로 보는 率이 急増하고 있어서 20代와 30代의 19.7% 및 31.0%에 대해 50代와 60代는 43.4% 및 75%에 이르고 있다.

이 것은 世代上의 本来的인 思考의 差 때문이라기 보다는 國際情勢에 대한 理解度에서 기인된 것 같다.

② 職業別로 볼 때는 医師와 大学生이 뚜렷한 差를 보이고 그 나머지는 뚜렷한 差가 없다. 医師는 分断状態 固定化를 促進한다고 보는 率이 21.3%이고 平和統一促進으로 보는 率이 51.1%인데 대해서 大学生의 경우는 66%와 27%로서 거의 正反対的인 反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③ 地域別로 볼 때는 光州의 경우가 두드러져서 다른 地域에서는 分断固定化에 意見을 表示한 사람이 50% 内外이나 光州의 경우는 75.9%나 된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平和統一을 促進할 것으로 보는 率이 높다.

第 3 節 南侵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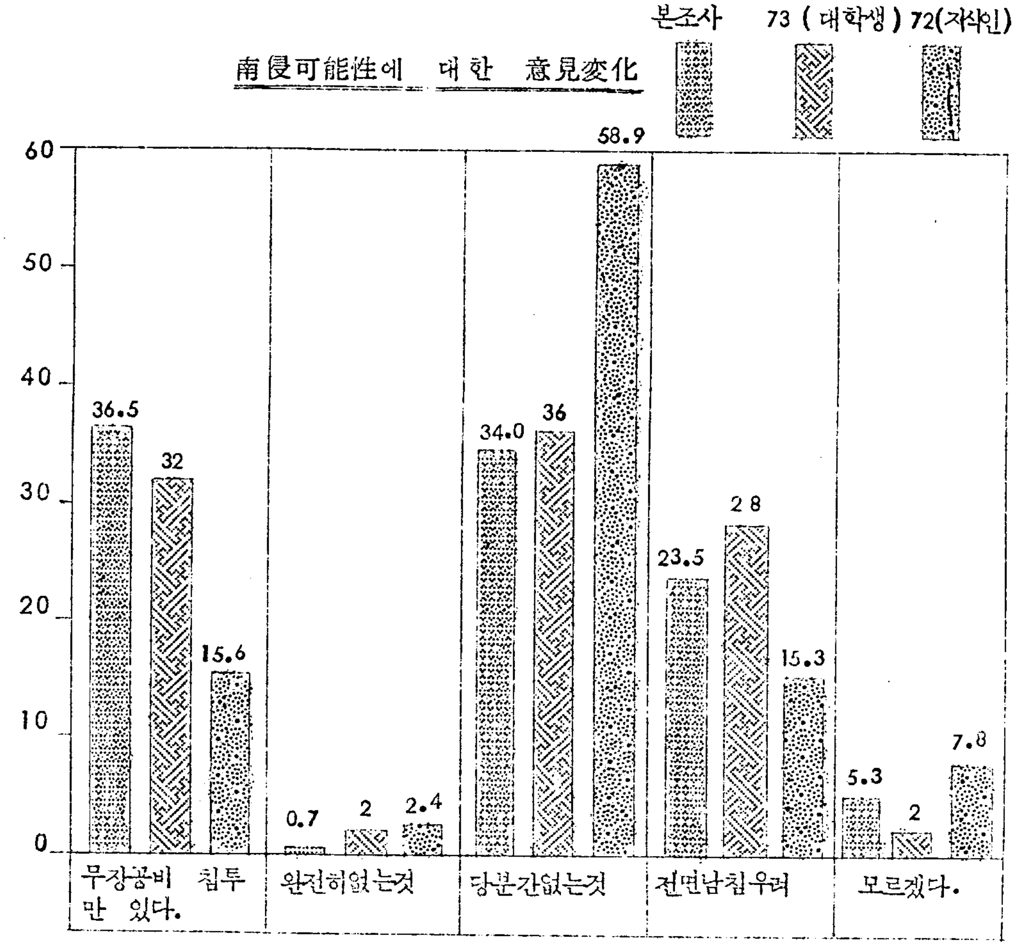
南北対話가 진행되고 또한 6.23宣言이 있은 지금에 北韓의 南侵可能性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北韓의 武力侵略이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을 하였는바 그 反応은 다음 表와 같았다.

<表 3-3-1 >

南侵可能性

구분 \ 비율	명	%
무장공비 침투만 있다.	219	36.5
완전히 없을것	4	0.7
당분간 없을것	204	34.0
전면남침 위험	141	23.5
모 르 겠 다.	32	5.3

<表3-3-2>



앞의 表들에서 매우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를 간추려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① 南侵可能性에 대한 反応에 있어 今年의 경우 어디에 集中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武装共匪만은 침투할 것이라는 것 (36.5%) 이다. 全面南侵의 우려를 표명한 것 (23.5 %) 이나 当分間 없을 것이라는 意見 (34.0 %) 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知識人의 경우 意見 (輿論) 의 集中化가 이 問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한다.

② 72年의 경우 過半數가 당분간은 武裝共匪 南派나 全面南侵이 없을 것(58.9%)으로 보고 있으나 今年에는 훨씬 줄었고 공비침투만은 있을 것으로 보는 率이 昨年의 2倍以上으로 늘었다는 点과 全面南侵의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率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変化는 6月의 大学生 調査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73年에 北韓側이 間諜南派와 休戰線上에서의 銃擊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과 対話가 不振했다는 점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各所屬別 反応은 어떠했는가를 다음 表들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3-3-3>

南 侵 可 能 性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장공비침투만있다.	74	40.44	68	31.48	57	40.71	18	33.96	2	25.00
완전히 없을것	3	1.64	.	.	.	.	1	1.89	-	-
당분간 없을것	72	39.34	76	35.19	37	26.43	18	33.96	1	12.50
전면남침위험	24	13.11	58	26.85	41	29.29	14	26.42	4	50.00
모르겠다.	10	5.46	14	6.48	5	3.57	2	3.77	1	12.50

<表 3-3-4 >

南 侵 可 能 性

<직업별>

구 분 \ 비 율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의 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장공비침투만있다.	58	38.67	38	34.55	12	25.53	12	25.53	22	46.81	22	45.83	41	39.81	14	29.17
완전히없을것	2	1.33	.	.	.	.	.	.	.	.	.	.	2	1.94	.	.
당분간없을것	61	40.67	40	36.36	19	40.43	21	44.68	13	27.66	15	31.25	24	23.30	11	22.92
전면남침위험	20	13.33	26	23.64	14	29.79	12	25.53	11	23.40	8	16.67	28	27.18	22	45.83
모르겠다.	9	6.00	6	5.45	2	4.26	2	4.26	1	2.13	3	6.25	8	7.77	1	2.08

<表3-3-5 >

南 侵 可 能 性

<지역별>

구 분 \ 비 율	서 울		부 산		광 주		춘 천	
	명	%	명	%	명	%	명	%
무장공비 침투만있다.	139	37.8	44	31.0	26	44.8	10	31.3
완전히 없을것	3	0.8	.	.	1	1.7	.	.
당분간 없을것	131	35.6	43	30.3	19	32.8	11	34.4
전면남침위험	76	20.7	47	33.1	10	17.2	8	25.0
모 르 겠 다.	19	5.2	8	5.6	2	3.4	3	9.4

<表 3-3-6 >

南侵可能性 <성 별>

구 분 \ 비 율	남자 명	남자 %	여자 명	여자 %
무장공비 침투만 있다。	173	34.6	41	48.2
완전히 없을것	3	0.6	1	1.2
당분간 없을것	180	35.0	24	28.2
전면남침위험	125	24.3	16	18.8
모 르 겠 다.	29	5.6	3	3.5

南侵可能性에 대한 所屬別反応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

① 60年代는全面南侵이 있다고 半數가 보고 있어서 (50 %) 20代의 13.1 %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밖의 30 ~ 50代는 全面南侵可能性에 3分의 1未滿의 反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② 經済人이 가장 많은 全面南侵의 憂慮를 表明 (45.8 %) 하고 大学生이 가장 적은 表明 (13.3 %) 하고 있고 法曹人과 文化芸術人은 공비침투도 없을 것으로 보는 경향 (각 25.5 %) 이 있다.

③ 地域別 反応特性은 거의 없다. 特히 接敵地域인 春川과 서울에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없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侵略에 楽観的이어서 女子의 경우 공비침투가 있을 것으로 보는 率이 48.2 %인데 男子는 34.6 %인것이다.

第 4 절　北韓印象

南北赤十字会談이 있은 뒤로는 많은 国民이 紙上으로나 또는 T.V 画面으로 北韓社会를 직접 볼수 있었다. 이것은 書籍 또는 口頭에 의한-그것도 政治教育의 手段이었던-接触에서 직접적인 接触을 한 후의 北韓社会에 대한 評価를 알기 위해서 「平壤과 北韓의 風景을 보고 들은 후의 印象」을 물은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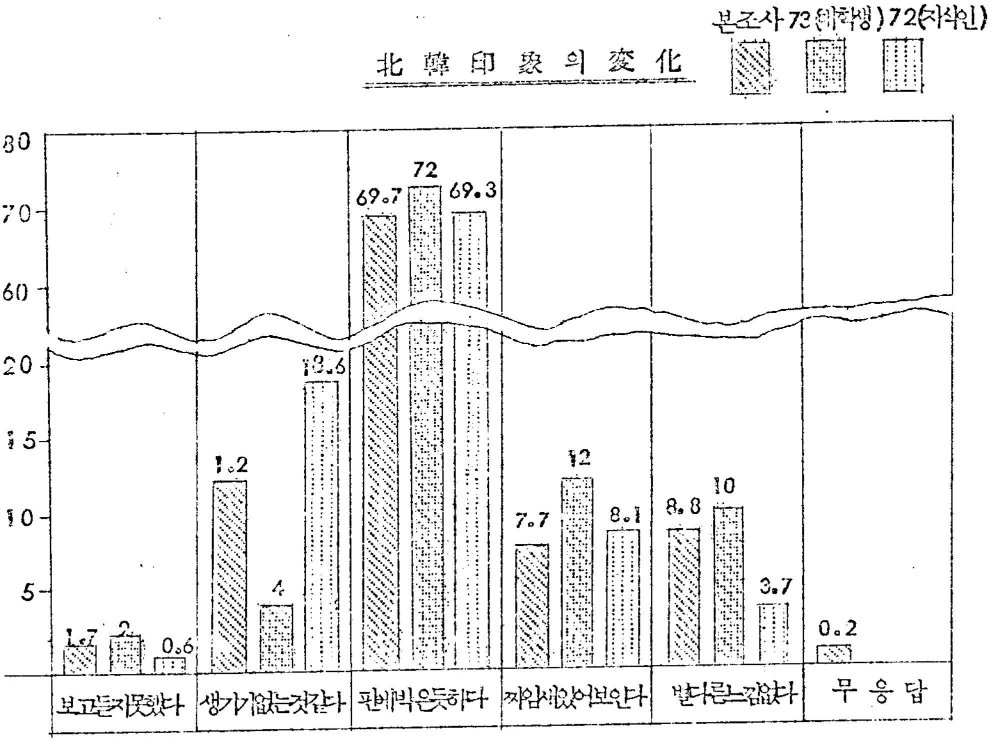
<表 4-3-1>

北韓印象 (전체)

구분 \ 비율	명	%
보고 듣지 못했다	10	1.7
생기가 없는것 같다	72	12.0
판에 박은듯 하다	418	69.7
짜임새있어 보인다	46	7.7
별다른 느낌없다	53	8.8
무 응 답	1	0.2

<表3-4-2>

北韓印象의 變化



앞의 표 3-4-1에서 보듯이 北韓社会에 非好意的 反応인 생기가 없는것 같다는 것(12%)이 好意反応(7.7%)보다 많으며 비교적 中立的인 것이 過半数인 69.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昨年에 비할때는 否定的인 反応이 18.6%에서 12%로 상당히 줄었다. 이것은 敵意 및 敵対意識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注目할만 하다.

<表 3-4-3>

北韓印象 (연령별)

구 분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보고듣지 못했다	4	2.19	2	0.93	2	1.43	1	1.89	1	12.50
생기가 없는것같다	17	9.29	28	12.96	16	11.43	10	18.87	1	12.50
판에박은듯 하다	120	65.57	157	72.69	105	75.00	31	58.49	5	62.50
짜임새가있어보인다	21	11.48	15	6.94	6	4.29	3	5.66	1	12.50
별다른 느낌없다	21	11.48	14	6.48	10	7.14	8	15.09		
무 응 답					1	0.71				

<表 3-4-4 >

北韓印象 (직업별)

비 율 \ 구분		보고듣지 못 했 다	생기가없 는것같다	판에박은 듯 하 다	짜임새있 어보인다	별다른느낌 없 다	무응답
대 학 생	명	4	12	97	19	18	
	%	2.67	8.00	64.67	12.67	12.00	
교 육 자	명	2	20	77	5	5	1
	%	1.82	18.18	70.00	4.55	4.55	0.91
법 조 인	명	1	4	35	6	1	
	%	2.13	8.51	74.47	12.77	2.13	
문화•예술인	명	1	9	27	4	6	
	%	2.13	19.15	57.45	8.51	12.77	
의 사	명	1	4	31	6	5	
	%	2.13	8.51	65.96	12.77	10.64	
언 론 인	명	1	3	40	1	3	
	%	2.08	6.25	83.33	2.08	6.25	
공 무 원	명		10	79	5	9	
	%		9.71	76.70	4.85	8.74	
경 제 인	명		10	32		6	
	%		20.83	66.67		12.50	

<3-4-5>

北韓印象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보고듣지 못했다	6	1.6	4	2.8				
생기가 없는것 같다	37	10.1	23	16.2	5	8.6	7	21.9
판에박은듯 하다	249	67.7	102	71.8	45	77.6	22	68.8
짜임새있어 보인다	33	9.0	9	6.3	2	3.4	2	6.3
별다른 느낌없다	43	11.7	4	2.8	5	8.6	1	3.1
무응답					1	1.7		

한편 앞에 제시한 表들에 나타난 北韓印象에 대한 所属別 反応의 特徵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代는 北韓社会에 대한 否定的인 反応을 적게 가져 50代의 18.9%에 대해 半数인 9.3이며 그 대신 肯定的인 反応은 많아 40代의 4.3%에 비하여 11.5%나 된다.

② 文化芸術人과 経済人이 否定的으로 보는 率이 높고(19.1%와 20.8%) 言論人과 大学生이 否定的으로 보는 率이 적다.(6.2%와 8.0%) 그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好意的 反応의 最大率은 法曹人(12.8%), 大学生(12.7%), 医師(12.8%)에서 나타나고 最小率은 言論人(2.1%)에서 나타난다.

③ 春川의 知識人이 가장 否定的(21.9%)이며 光州의 경우는 8.6%에 지나지 않는다.

第 5 節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

住民의 日常生活面에서 南北韓의 어디가 잘산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다음 表 3-5-1과 같고 年度別의 변화는 表 3-5-2와 같다. 日常生活은 衣食住만을 뜻한다는 것을 調査時 주지시켰음을 여기에 첨가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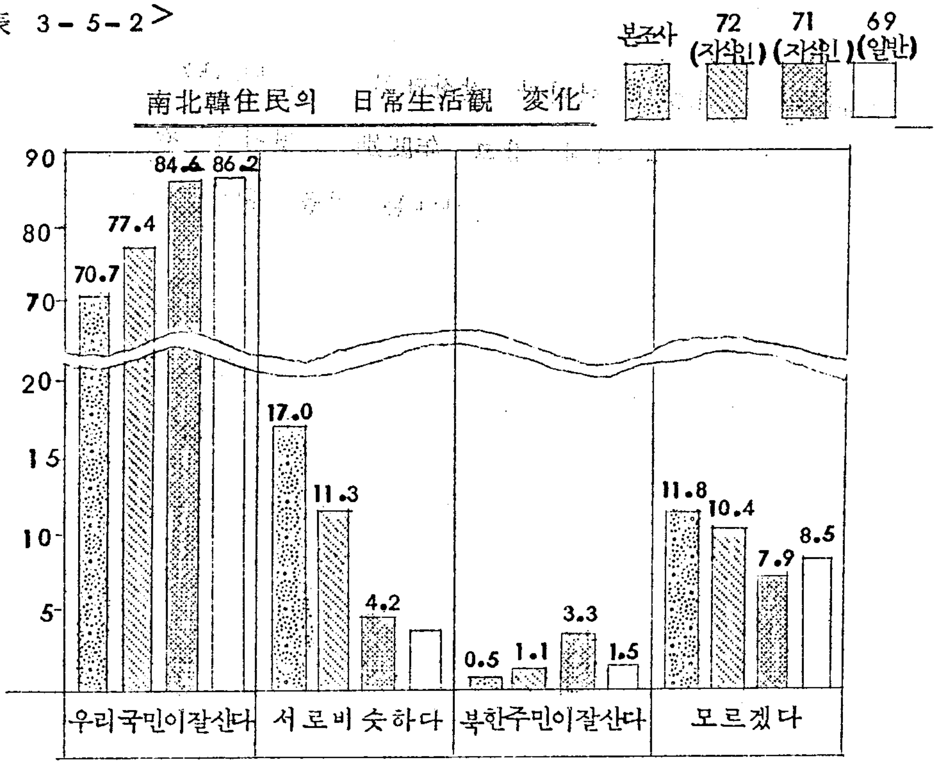
<表 3-5-1>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比較 (全体)

구분 \ 비율	명	%
우리국민이 잘산다	424	70.7
서로 비슷하다	102	17.0
북한주민이 잘산다	3	0.5
모르겠다	71	11.8

外 2 玉

<表 3-5-2>



앞의 表3-5-1 에서 보듯이 多数가 우리 国民이 잘산다고 보고 있으며 (70.7 %) 北韓이 잘산다고 보는 사람은 0.5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잘산다는 数가 줄고 있으며 특히 그것은 南北往来가 이루어진 후에 뚜렸하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D.k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事変들은 北韓에 대한 知識의 增大와 병행하여 나타났다. 그런점에서는 認識 및 評価가 現実化된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免疫性이 생겼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할수있다. 한편 南北韓의 住民生活観의 所属別 실태는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5-3 >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比較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우리국민이 잘산다	102	55.74	161	74.54	115	.14	40	75.47	6	75.00
서로 비슷하다	52	28.42	28	12.96	15	10.71	6	11.32	1	12.50
북한주민이 잘산다	2	1.09			1	0.71				
모르겠다	27	14.75	27	12.50	9	6.43	7	13.21	1	12.50

<表 3-5-4 >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比較 (직업별)

비율 \ 구분		우리국민이잘산다	서로비슷하다	북한주민이잘산다	모르겠다
대 학 생	명	77	46	2	25
	%	51.33	30.67	1.33	16.67
교 육 자	명	88	12		10
	%	80.00	10.91		9.09
법 조 인	명	34	9	1	3
	%	72.34	19.15	2.13	6.38
문화.예술인	명	40	5		2
	%	85.11	10.64		4.26
의 사	명	32	9		6
	%	68.09	19.15		12.77
언 론 인	명	41	3		4
	%	85.42	6.25		8.33
공 무 원	명	82	10		11
	%	79.61	9.71		10.68
경 제 인	명	30	8		10
	%	62.50	16.67		20.83

<表 3-5-5>

南北韓住民의 日常生活比較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우리국민이 잘산다	253	68.8	101	71.1	42	72.4	28	87.5
서로 비슷하다	70	19.0	20	14.1	10	17.2	2	6.3
북한주민이 잘산다	2	0.5			1	1.7		
모르겠다	43	11.7	21	14.8	5	8.6	2	6.3

앞의 表들에 나타난 所屬別의 南北韓住民에 대한 日常生活觀의 특징을 간추려 보자.

① 20代가 다른 年代와 두드러진 差를 보이고 있다. 30~60代는 우리가 잘산다고 보는 率이 3分의 2線 또는 그 이상인데 20代는 過半數線인 55.7%이고 비슷하다고 보는 率이 다른 年代의 10.7~13.0% 보다 훨씬 높은 28.4%나 된다. 그것은 未知의 世界에 대한 호기심과 우리 生活에 內在하는 矛盾性에 靑年層이 反撥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注目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우리 国民이 잘산다고 보는 職業別 最小值는 大学生(51.3%)와 経済人(62.5%)에서 나왔고 最小值는 言論人(85.4%)와 文化経済人(85.1%)에서 나왔으며 大学生中 30.7%가 서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大学生의 이런 反応은 앞에 分析했듯이 우리의 現実矛盾 및 未知世界에의 호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③ 地域別로 보면 大都市일수록 우리 国民이 잘산다는 意見이 적어 서울의 경우 68.8%인데 대해서 春川은 87.5%이다.

따라서 大都市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 率이 많으며 또한 D.K率도 높다.

第 6 節 対北説得自信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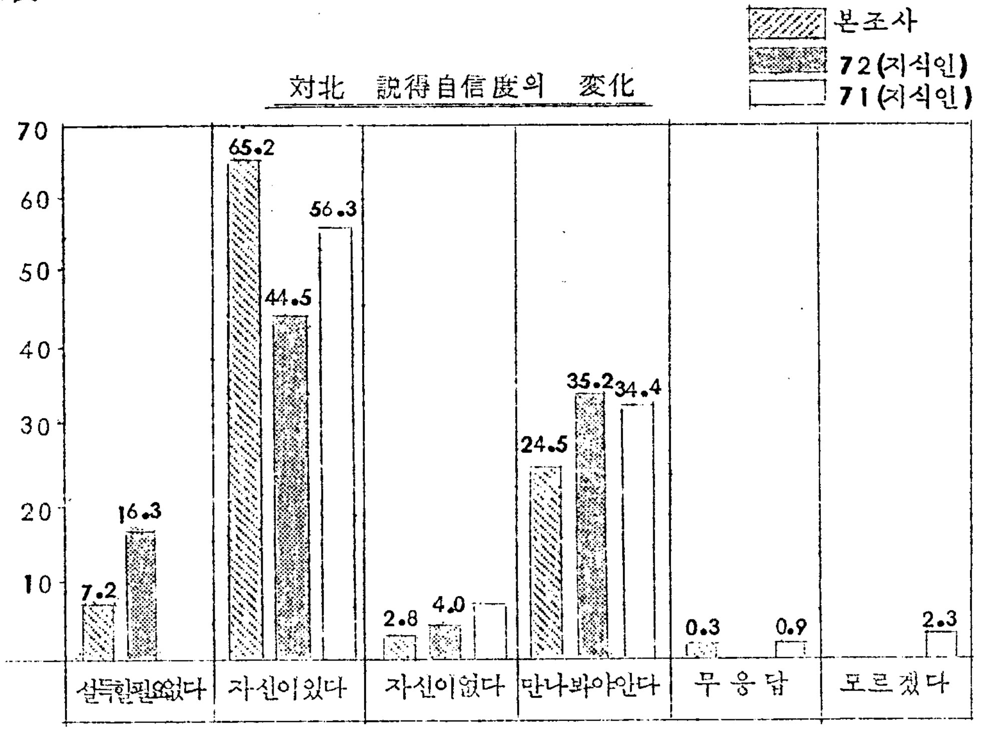
知識人의 勝共確信率을 알고 交流時에 北韓同胞를 얼마나 説得할 수 있는 自信을 가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北韓同胞를 만났을때 南韓의 優越性을 説得할 自信이 있느냐」는 質問을 하였는바 그 結果는 다음의 表3-6-1과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表3-6-2와 같이 다른 때와 差異를 보이고 있다.

<表3-6-1>

対北説得自信度(전체)

구분 \ 비율	명	%
설득할 필요없다	43	7.2
자신이 있다	391	65.2
자신이 없다	17	2.8
만나봐야 안다	147	24.5
무 응 답	2	0.3

<表 3-6-2>



앞의 表3-6-1과 같이 過半數가 自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自信이 없다고 自認하는 사람은 2.8%에 不過하다. 그러나 만나 봐야 안다는 것도 自信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自信없는 사람이 27.3%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說得自信度의 年度別變化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自信이 있다는 率이 올라 갔고 만나봐야 안다는 率이 크게 줄었으며 說得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한 크게 줄었다. 이것은 対話進行過程에서 볼때 꾸준히 北韓同胞를 說得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는 것과 說得에 自信이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것을 所屬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6-3 >

対北說得自信度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설득할 필요없다	19	10.38	12	5.56	6	4.29	6	11.32		
자신이 있다	107	58.47	146	67.59	97	69.29	34	64.15	7	87.50
자신이 없다	10	5.46	3	1.39	4	2.86				
만나봐야 안다	45	24.59	55	25.46	33	23.57	13	24.53	1	12.50
무 응 답	2	1.09								

<表 3-6-4 >

対北說得自信度

<직업별>

비율 \ 구분		설득할필요없다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만나봐야 안다	무응답
대학생	명	17	86	10	35	2
	%	11.33	57.33	6.67	23.33	1.33
교육자	명	4	77	1	28	
	%	3.64	70.00	0.91	25.45	
법조인	명	1	34	1	11	
	%	2.13	72.34	2.13	23.40	
문화·예술인	명	3	23	1	20	
	%	6.38	48.94	2.13	42.55	
의사	명	3	32	2	10	
	%	6.38	68.09	4.26	21.28	
언론인	명	2	35		11	
	%	4.17	72.92		22.92	
공무원	명	11	72	2	18	
	%	10.68	69.90	1.94	17.48	
경제인	명	2	32		14	
	%	4.17	66.37		27.14	

<表3-6-5>

対北說得自信度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설득할 필요없다	30	8.2	8	5.6	4	6.9	1	3.1
자신이 있다	238	64.7	95	66.9	31	53.4	27	84.4
자신이 없다	11	3.0	2	1.4	4	6.9		
만나봐야 안다	88	23.9	36	25.4	19	32.8	4	12.5
무응답	1	0.3	1	0.7				

<表3-6-6>

対北說得自信度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설득할 필요없다	33	6.4	10	11.8
자신이 있다	344	66.8	47	55.3
자신이 없다	15	2.9	2	2.4
만나봐야 안다	122	23.7	25	29.4
무응답	1	0.2	1	1.2

앞에 제시한 所屬別 表들에서 나타난 특징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20代와 60代는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20代는 說得自信度가 너무 낮아 58.5%밖에 안돼 30~50代의 64~69%線에서 너무 뒤지고 있으며 60代는 87.5%가 自信있음을 나타내 역시 뛰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② 說得必要없다는 最大率은 学生(11.3%)과 公務員(10.7%)에게서 最少率은 法曹人에게서 나오고 있고 自信이 있다는 最大数는 言論人과 法曹人(72.9%와 72.3%)에게서 最少数는 文化芸術人(48.9%)에서 나타나고 있다.

③ 休戰線에 近接한 地域人이 說得自信度가 높아 春川의 경우 84.4%나 되는데 光州의 경우는 53.4%에 불과하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說得自信度가 높아 55.3% 対 66.8%이다.

第 3 章　対話 및 교류에 관한 意見

第3章 対話 및 交流에 관한 意見

第1節 交流의 第1順位

南北対話가 진행되면서 交流問題가 큰 関心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交流는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政治, 経済, 社会, 文化등 分野別로 나누어 「南北交流를 할 경우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으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 4-1-1과 같다.

<表 4-1-1>

交流의 第1順位(전체)

구분 / 비율	교류불필요	문화교류	인도적교류	사회적교류	정치적교류	경제적교류	무응답
명	9	139	232	86	18	65	1
%	1.5	31.5	38.7	14.3	3.0	10.8	0.2

表4-1-1에서 보듯이 交流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서 人道的 交流→ 文化交流→ 観光과 여행등의 社会的 交流→ 経済的 交流→ 政治交流의 順序이다.

그런데 人道交流와 文化交流를 第1順位로 보는 사람이 38.7%와 31.5%로서 大部分을 차지하지만 隔差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체로 人道交流를 1位로 생각하기 쉬우나 知識人의 경우 文化交流도 重要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交流의 第一順位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교류불필요	5	2.73	2	0.93	1	0.71	1	1.89	–	–
문화교류	69	37.70	66	30.56	39	27.86	13	24.53	2	25.00
인도적교류	54	29.51	84	38.89	66	47.14	23	43.40	5	62.50
사회적교류	28	15.30	35	16.20	17	12.14	6	11.32	–	–
정치적교류	5	2.73	5	2.31	6	4.29	1	1.89	1	12.50
경제적교류	22	12.02	24	11.11	10	7.14	9	16.98	–	–
무 응 답	–	–	–	–	1	0.71	–	–	–	–

<表 4-1-3>

交流의 第一順位

<직업별>

구분 / 비율		교 류 불필요	문 화 교 류	인도적 교 류	사회적 교 류	정치적 교 류	경제적 교 류	무응답
대학생	명	4	57	44	21	4	20	–
	%	2.67	38.00	29.33	14.00	2.67	13.33	–
교육자	명	–	31	43	19	4	12	1
	%	–	28.18	39.09	17.27	3.64	10.91	0.91
법조인	명	1	8	25	9	1	3	–
	%	2.13	17.02	53.19	19.15	2.13	6.38	–
문 화 예술인	명	–	15	24	3	–	5	–
	%	–	31.91	54.06	6.38	–	10.64	–
의 사	명	1	18	16	7	3	2	–
	%	2.13	38.30	34.04	14.89	6.38	4.26	–
언론인	명	–	16	17	10	1	4	–
	%	–	33.33	35.42	20.83	2.08	8.33	–
공무원	명	2	28	44	12	2	15	–
	%	1.94	27.18	42.72	11.65	1.94	14.56	–
경제인	명	1	16	19	5	3	4	–
	%	2.08	33.33	39.58	10.42	6.25	8.33	–

<表 4-1-4>

交流의 第一順位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교류불필요	8	2.2	–	–	1	1.7	–	–
문화교류	118	32.1	46	32.4	20	34.5	5	15.6
인도적교류	145	39.4	52	36.6	21	36.2	14	43.8
사회적교류	45	12.2	24	16.9	9	15.5	8	25.0
정치적교류	9	2.4	7	4.9	1	1.7	1	3.1
경제적교류	42	11.4	13	9.2	6	10.3	4	12.5
무응답	1	0.3	–	–	–	–	–	

<表 4-1-5>

交流의 第一順位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교류불필요	8	1.6	1	1.2
문화교류	164	31.8	25	29.4
인도적교류	201	39.0	31	36.5
사회적교류	67	13.0	19	22.4
정치적교류	12	2.3	6	7.1
경제적교류	62	12.0	3	3.5
무응답	1	0.2	–	–

한편 앞의 表들에 나타난 交流의 第1順位에 대한 所屬別 反応을 을 간추려 보자.

① 高令層일수록 人道交流를 第1位로 꼽으며 특히 60代는 20代의 29.5%에 대해 62.5%나 된다. 그리고 20代만은 다른 年代와는 달리 文化交流를 人道交流보다 더 優先시키고 있다.

② 職業別 反応의 특징은 매우 흥미롭다. 文化交流와 관계가 깊은 文化芸術人(31.9%)과 言論人(33.3%) 및 教育者(28.2%)보다도 医師(38.3%)와 学生(38%) 및 経済人(33.3%)이 文化交流優先率이 높다는 점과 経済交流優先에 있어서도 経済人(8.3%)보다도 公務員(14.6%)과 学生(13.3%)이 더 높은 率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自己所屬分野에서의 交流에서는 어떤 利益이 없다는 判断 때문인듯 하고

③ 接敵地에 가까운 春川의 경우가 다른 곳과 특별한 反応을 보이고 있다. 즉 人道交流優先率이 매우 높으며 社会交流優先도 文化交流에 앞서고 다른 地域民보다 훨씬 높은 의견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春川에 越南人이 많거나 観光과 利害를 갖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④ 女子의 경우 社会交流優先論이 강하여 経済交流優先論이 매우 낮다.

第 2 節　交流와　北韓自由化

「南北交流가 本格化될 경우 北韓社会에 自由化물결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보느냐」 물음에 대한 反応은 다음 表 4-2-1 과 같다.

<表 4-2-1 >

交流와　北韓自由化（전체）

구분 / 비율	곧주민정신 변화	수년교류후 변화	완전통일시까지 불변	모르겠다.	무응답
명	95	403	90	11	1
%	15.8	67.2	15.0	1.8	0.2

앞의 表에서도 보듯이 大部分의 知識人은 北韓의 自由化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극히 楽観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交流를 하면 곧 自由化될 것으로 보는 知識人(15.8 %)과 悲観的 見解를 보이는 統一時까지 不變이라는 反応(15.0 %)이 거의 비슷하다. 즉 知識人은 北韓의 自由化가 쉽지는 않으나 可能하다고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所属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4-2-2 >

交流와 北韓自由化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곧주민정신변화	26	14.21	29	13.43	29	20.71	10	18.87	1	12.50
수년교류후변화	121	66.12	156	72.22	92	65.71	29	54.72	5	62.50
완전통일시까지불변	32	17.49	28	12.96	16	11.43	12	22.64	2	25.00
모 르 겠 다	3	1.64	3	1.39	3	2.14	2	3.77	–	–
무 응 답	1	0.55	–	–	–	–	–	–	–	–

<表 4-2-3 >

交流와 北韓自由化

<직업별>

비율 \ 구분		곧주민정신 변화	수년교류후 변화	완전통일시 까지 불변	모르겠다	무 응 답
대학생	명	23	95	28	3	1
	%	15.33	63.33	18.67	2.00	0.67
교육자	명	19	79	11	1	–
	%	17.27	71.82	10.00	0.91	–
법조인	명	10	32	4	1	–
	%	21.28	68.09	8.51	2.13	–
문 화 예술인	명	6	30	10	1	–
	%	12.77	63.83	21.28	2.13	–
의 사	명	4	33	8	2	–
	%	8.51	70.21	17.02	4.26	–
언론인	명	4	35	9	–	–
	%	8.33	72.92	18.75	–	–
공무원	명	21	67	13	2	–
	%	20.39	65.05	12.62	1.94	–
경제인	명	8	32	7	1	–
	%	16.67	66.67	14.58	2.08	–

<表 4-2-4>

交流와 北韓自由化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곧주민정신변화	54	14.7	25	17.6	9	15.5	7	21.9
수년교류후변화	245	66.6	98	69.0	42	72.4	18	56.3
완전통일시까지 불변	59	16.0	17	12.0	7	12.1	7	21.9
모르겠다	10	2.7	7	0.7	−	−	−	−
무응답	−	−	7	0.7	−	−	−	−

앞의 表들에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꼽을 수 있다.

① 30代와 40代는 自由化에 다른 연령층보다 약간 楽觀的이며 50代와 60代는 悲觀的이다. 50, 60代는 22.6%와 25%가 自由化가 統一時까지 不可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② 法曹人과 公務員은 곧 自由化가 可能하다고 보는 경향(21.3%와 20.4%)이 있고 医師와 言論人은 그 反対傾向(8.5%와 8.3%)이 있으며 가장 悲觀的인 見解를 갖는 職種은 文化芸術人의 경우로서 統一時까지 不可能하다고 보는 率이 21.3%나 된다.

③ 春川의 경우는 楽觀(곧 變化)과 悲觀(統一時까지 不變)의 양쪽에 다른 地域民보다 몰려 있다. 즉 楽觀的인 率이 21.9%로 서울의 14.7%보다 훨씬 높으며 悲觀的 見解도 21.9%로서 釜山(12.0%)이나 光州(12.1%)보다 훨씬높다.

第3節 交流時의 脆弱勢力

南北交流가 本格化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는 自体內에 지니고 있는 矛盾 또는 脆弱点을 事前에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層이 가장 脆弱한 層인가를 찾아내어 그들에 대한 集中指導가 必要하다. 이런 뜻에서 「交流가 本格化할 경우 어느 層이 가장 脆弱하냐」고 물은 결과는 다음表와 같다.

<表 4-3-1>

交流時의 脆弱勢力(전체)

구분 / 비율	영세 농어민	도시의 하급노동층	월북가족	월남가족	6.25 미경험자	무응답
명	71	270	21	25	207	6
%	11.8	45.0	3.5	4.2	34.5	1.0

앞의 表에서 나타나 있듯이 「都市의 下級労動者」와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이 脆弱勢力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大部分이어서 各各 45.0%와 34.5%를 차지한다. 都市下層民이 零細農漁民보다 越等히 脆弱時되는 것은 農漁民이 本来 保守性을 지녔다는 点과 生存危脅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各 所屬別로 어떤 反応이 나왔는가를 다음 表들에 提示하여 본다.

<表 4-3-2 >

交流時의 脆弱勢力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영세농어민	27	14.75	29	13.43	12	8.57	2	3.77	1	12.50
도시의 하급노동층	90	49.18	94	43.52	62	44.29	22	41.51	2	25.00
월북가족	7	3.83	8	3.70	5	3.57	-	-	1	12.50
월남가족	8	4.37	9	4.17	5	3.57	3	5.66	-	-
6.25 미경험자	50	27.32	74	34.26	55	39.29	25	47.17	3	37.50
무응답	1	0.55	2	0.93	1	0.71	1	1.89	1	12.50

<表 4-3-3 >

交流時의 脆弱勢力 (직업별)

비율 \ 구분		영세농어민	도시의 하급노동층	월북가족	월남가족	6.25 미경험자	무응답
대학생	명	21	79	7	8	35	-
	%	14.00	52.67	4.67	5.33	23.33	-
교육자	명	12	49	1	4	44	-
	%	10.91	44.55	0.91	3.64	40.00	-
법조인	명	6	23	3	-	14	1
	%	12.77	48.94	6.38	-	29.79	2.13
문화예술인	명	2	15	3	2	25	-
	%	4.26	31.91	6.38	4.26	53.19	-
의사	명	7	16	2	4	17	1
	%	14.89	34.04	4.26	8.51	36.17	2.13
언론인	명	8	21	-	1	18	-
	%	16.67	43.75	-	2.08	37.50	-
공무원	명	12	49	4	3	32	3
	%	11.65	47.57	3.88	2.91	31.07	2.91
경제인	명	3	18	1	3	22	1
	%	6.25	37.50	2.08	6.25	45.83	2.08

<表 4-3-4 >

交流時의 脆弱勢力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영세농어민	39	10.6	17	12.0	12	20.7	3	9.4
도시의 하급노동층	164	44.6	69	48.6	24	41.4	13	40.6
월북가족	11	3.0	2	1.4	7	12.1	1	3.1
월남가족	18	4.9	4	2.8	1	1.7	2	6.3
6.25 미경험자	131	35.6	50	35.2	14	24.1	12	37.5
무응답	5	1.4	-	-	-	-	1	3.1

<表 4-3-5 >

交流와 南韓의 脆弱勢力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영세농어민	61	11.8	10	11.8
도시의 하급노동층	241	46.8	29	34.1
월북가족	18	3.5	3	3.5
월남가족	20	3.9	5	5.9
6.25 미경험자	169	32.8	38	44.7
무응답	6	1.2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脆弱勢力觀의 特徵을 간추려 보자

① 6.25를 經驗하지 않은 20代는 스스로가 脆弱勢力이라고 보는 率이 다른 年代에 비하여 뚜렷이 적으며 특히 50代의 47.2%에 대해 27.3%밖에 안된다. 20代와 다른 年代와의 이런 差異는 世代間의 「思想疑心」을 일으키는 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注目할 事實이다.

② 大学生의 過半數인 52.7%가 都市下層民을 지곡하고 있는데 대해서 文化藝術人은 6.25未經驗者를 많이 指目(53.2%)하고 있다. 大学生의 경우는 앞의 年令別 分析에서도 지적했듯이 自身은 脆弱勢力이라고 自認하지 않으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自認者는 23.3%)

③ 地域別로 意見의 差는 거의 없으나 다만 光州의 경우 農漁民率이 다른 都市보다 倍数인 20.7%에 이르고 그 대신 青年率은 24.1%로 다른 地域의 反応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光州가 穀倉地帯에 位置하고 湖南이 덜 発達했다는 점과 결부시켜 볼때 어떤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④ 男子는 都市下層民을 脆弱勢力으로 보는 率이 높고 女子는 6.25未經驗者에 대한 率이 높다.

第 4 節 南北対話의 進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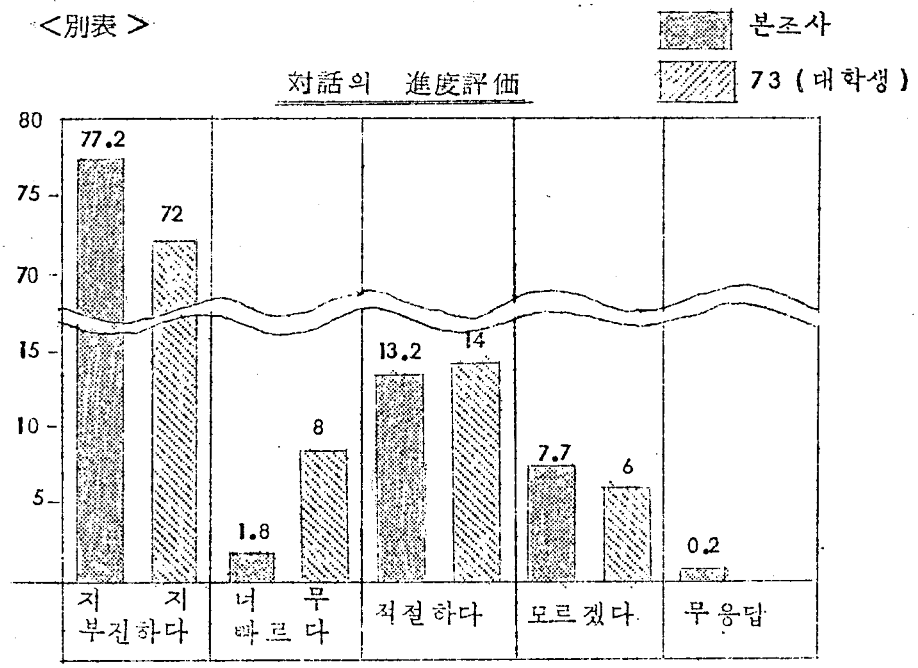
進行되고 있는 南北対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進展되고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反対로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知識人들에게 「지금 進行되고 있는 南北対話가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다고 보느냐 」는 물음을 한데 대해서 다음 表4-4-1 과 같은 反応을 보이고 있다.

<表 4-4-1 >

対話의 進度評価 (전체)

구분 \ 비율	본 조 사		73 (대학생)	
	명	%	명	%
지지 부진하다	463	77.2	72	72
너무 빠르다	11	1.8	8	8
적절하다	79	13.2	14	14
모르겠다	46	7.7	6	6
무응답	1	0.2		

<別表>



対話의 進度評価

앞의 表에 나타난 特徵의 몇가지를 뽑아보기로 한다.

① 大部分의 知識人이 「너무 부진하다」(77.2%)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南北関係의 새로운 展開에 대해서 너무도 큰 期待를 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한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즉, 昨年까지의 南北対話가 순조롭게 進展되어 갔는바 그 정도의 速度를 期待하고 있는듯 하다.

② 지난 6月 調査된 大学生의 反応과 거의 비슷한 反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大学生의 경우는 너무 빠르다는 率이 8%나 됐으나 이번의 調査에서는 1.8%밖에 안된다.

한편 所属別 反応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4-4-2 >

対話의 進度評価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명	20 대 %	30 대 명	30 대 %	40 대 명	40 대 %	50 대 명	50 대 %	60 대 명	60 대 %
지지 부진하다	132	72.13	175	81.02	109	77.86	41	77.36	6	75.00
너무 빠르다	2	1.09	4	1.85	3	2.14	2	3.77	-	-
적절하다	26	14.21	27	12.50	18	12.86	6	11.32	2	25.00
모르겠다	22	12.02	10	4.63	10	7.14	4	7.55	-	-
무응답	1	0.55	-	-	-	-	-	-	-	-

<表 4-4-3 >

対話의 進度評価 (직업별)

구분 \ 비율		지지 부진하다	너무 빠르다	적절하다	모르겠다	무응답
대 학 생	명	109	-	22	18	1
	%	72.67	-	14.67	12.00	0.67
교 육 자	명	87	2	16	5	-
	%	79.09	1.82	14.55	4.55	-
법 조 인	명	35	2	6	4	-
	%	74.47	4.26	12.77	8.51	-
문화 예술인	명	39	1	6	1	-
	%	82.98	2.13	12.77	2.13	-
의 사	명	33	-	10	4	-
	%	70.21	-	21.28	8.51	-
언 론 인	명	39	2	3	4	-
	%	81.25	4.17	6.25	8.33	-
공 무 원	명	80	3	11	9	-
	%	77.67	2.91	10.68	8.74	-
경 제 인	명	41	1	5	1	-
	%	85.42	2.08	10.42	2.08	-

<表 4-4-4 >

對話의 進度評価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지지 부진하다	292	79.3	106	74.6	40	69.0	25	78.1
너무 빠르다	7	1.9	4	2.8	-	-	-	-
적절하다	42	11.4	26	18.3	6	10.3	5	15.6
모르겠다	26	7.1	6	4.2	12	20.7	2	6.3
무응답	1	0.3	-	-	-	-	-	-

<表 4-4-5 >

對話의 進度評価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지지 부진하다	391	75.9	72	84.7
너무 빠르다	10	1.9	1	1.2
적절하다	71	13.8	8	9.4
모르겠다	42	8.2	4	4.7
무응답	1	0.2	-	-

앞의 表들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이 나타났다.

① 年令別 意見의 差는 거의 없었다.

② 經濟人과 文化藝術人이 對話에의 期待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바 對話가 부진하다는 率이 85.4% 및 83.0%로서 医師의 70.2%보다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③ 休戰線에 가까운 서울과 春川이 釜山과 光州보다 期待水準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女子의 경우가 男子보다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 率이 높아 男子의 75.9%에 대해서 84.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第 5 節 対話의 継続与否

調節委員会와 赤十字会談이 진행되고 있거니와 그것의 実績을 間接評価하는 뜻에서 「南北対話의 실적으로 보아 対話를 계속해야 하겠느냐」는 물음을 하여본 結果는 다음의 表 4-5-1 과 같이 나타났다.

<表 4-5-1 >

対話의 継続与否 (전체)

구분 / 비율	모두 중지할것	모두 계속할것	조절위만 계속할것	적십자회담만 계속 할 것	다른기관으로발전할것	기능별기구로확대할것	무응답
명	33	301	30	20	40	175	1
%	5.5	50.2	5.0	3.3	6.7	29.2	0.2

앞의 表에서 보듯이 꼭 半数가 지금 進行되고 있는 対話 (調節委와 赤十字会談) 를 모두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3分의 1에 가까운 29.2 %가 機能別로 여러 機構를 만들어 대화의 통로를 확대시킬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을 각 所屬別로 보기로 한다.

<表 4-5-2>

대화의 계속여부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모두중지할것	12	6.56	9	4.17	8	5.71	1	1.89	3	37.50
모두계속할것	69	37.70	111	51.39	85	60.71	32	60.38	4	50.00
조절위만계속할것	11	6.01	10	4.63	6	4.29	3	5.66		
적십자회만 계속할것	10	5.46	6	2.78	4	2.86				
다른기관으로발전할것	19	10.38	13	6.02	5	3.57	3	5.66		
기능별기구로확대할것	62	33.88	66	30.56	32	22.86	14	26.42	1	12.50
무응답			1	0.46						

<表 4-5-3>

대화의 계속여부

(직업별)

구분 / 비율		모두 중지할것	모두 계속할것	조절위만 계속할것	적십자회만 계속할것	다른기관으로 발전할것	기능별기구로 확대할것	무응답
대학생	명	9	55	8	9	14	55	
	%	6.00	36.67	5.33	6.00	9.33	36.67	
교육자	명	4	60	7	2	9	27	1
	%	3.64	54.55	6.36	1.82	8.18	24.55	0.91
법조인	명	3	23	3	2	2	14	
	%	6.38	48.94	6.38	4.26	4.26	29.79	
문화예술인	명	3	26	1	1	3	13	
	%	6.38	55.32	2.13	2.13	6.38	27.66	
의사	명	5	21	2	3	4	12	
	%	10.64	44.68	4.26	6.38	8.51	25.53	
언론인	명	4	28	2		3	11	
	%	8.33	58.33	4.17		6.25	22.92	
공무원	명	3	60	3	3	5	29	
	%	2.91	58.25	2.91	2.91	4.85	28.16	
경제인	명	2	28	4			14	
	%	4.17	58.33	8.33			29.17	

<表 4-5-4>

対話의 계속여부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모두중지할것	21	5.7	7	4.9	5	8.6		
모두계속할것	189	51.4	69	48.6	26	44.8	17	53.1
조절위만계속할것	14	3.8	8	5.6	3	5.2	5	15.6
적십자회만 계속할것	16	4.3	2	'.4	2	3.4		
다른기관으로발전할것	27	7.3	9	6.3	2	3.4	2	6.3
기능별기구로확대할것	100	27.2	47	33.1	20	34.5	8	25.0
무응답	1	0.3						

<表 4-5-5>

대화의 계속여부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모두중지할것	28	5.4	5	5.9
모두계속할것	269	52.2	32	37.6
조절위만계속할것	22	4.3	8	9.4
적십자회만 계속할것	15	2.9	5	5.9
다른기관으로발전할것	32	6.2	8	9.4
기능별기구로확대할것	149	28.9	26	30.6
무응답			1	1.2

앞의 表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対話를 모두 中止하라는 要求가 60代에서 다른 年代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 다른 年代는 1.89～6.56% 밖에 안되는데 60代에서는 무려 37.5%나 된다。

이것은 60代의 保守性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중에서 過半数未達은 37.7%의 20代인바 20代는 「모두 계속」하라는 것과 機能別의 機構拡大의 비율이 비슷(前者는 37.7%, 後者는 33.9%)하다.

② 大学生의 경우 「대화를 모두 계속할것」과 「機能別의 機構拡大」의 主張이 36.7%로서 同率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公務員과 言論人 및 経済人의 경우는 「모두 계속하라」는 주장이 58.3%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③ 休戦線에 近接地域인 서울과 春川에서 「모두 계속할것」에 대한 主張이 많고 釜山과 光州에서는 機能別 拡大主張이 많이 나오고 있다.

④ 男子의 경우 女子보다 「모두 계속할것」을 더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 비율은 52.2% 대 37.6%에 이르고 있다.

第 6 節　調節委進展方案

南北調節委員会가 今年들어 교착상태에 빠졌는바 그것은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主義와 우리의 非政治問題優先論이 대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해 「南北調節委員会 会談을 진전시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表 4-6-1>　調節委進展方案 (全体)

구 분 \ 비 율	본 조 사	
	명	%
군사문제 우선토의	83	13.8
사회 · 경제 문화문제 우선	395	65.8
타기관으로의 발전적위임	25	4.2
전분과위의 기능발휘	73	12.2
아무래도 좋다.	5	0.8
회담할 필요없다.	18	3.0
무 응 답	1	0.2

앞의 表에서 본 바와 같이 「非政治 問題의 先議」를 내세우는 知識人이 大部分(65.8 %)이다. 이는 政府案에 대한 同調가 강함을 뜻한다. 그러나 北쪽의 主張에 同調하는 率도 軍事問題先議의 13.8 %와 全分科分의 機能発揮 12.2 %등 무시할 수 없는 数에 이른다. 한편 所属別 反応을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4-6-2

調節委進展方案

(연령별)

구 분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군사문제 우선토의	21	11.48	36	16.67	16	11.43	9	16.98	1	12.50
사회 · 경제 · 문화문제 우선	114	62.30	141	65.28	101	72.14	36	67.92	3	37.50
타기관으로 발전적 위임	12	6.56	4	1.85	6	4.29	.	.	3	37.50
전분과위의 기능발휘	25	13.66	30	13.89	12	8.57	6	11.32	.	.
아무래도 좋다.	2	1.09	1	0.46	1	0.71	1	1.89	.	.
회담할 필요 없다.	9	4.92	4	1.85	3	2.14	1	1.89	1	12.50
무 응 답	.	.	.	.	1	0.71	.	.	.	.

表 4-6-3

調節委進展方案

(직업별)

구 분 \ 비 율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의 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군사문제 우선토의	16	10.67	15	13.64	4	8.51	7	14.89	15	31.91	7	14.58	8	7.77	11	22.92
사회 · 경제 · 문화문제우선	93	62.00	75	68.18	30	63.83	28	59.57	26	55.32	33	68.75	78	75.73	32	66.67
타기관으로의 발전적위임	10	6.67	3	2.73	.	.	4	8.51	2	4.26	3	6.25	3	2.91	.	.
전분과위의 기능발휘	21	14.00	12	10.91	10	21.28	6	12.77	3	6.38	4	8.33	13	12.62	4	8.33
아무래도 좋다.	2	1.33	2	1.82	.	.	1	2.13	.	.	.	.	.	.	.	.
회담할 필요없다	8	5.33	2	1.82	3	6.38	1	2.13	1	2.13	1	2.08	1	0.97	1	2.08
무 응 답	.	.	1	0.91	.	.	.	.	.	.	.	.	.	.	.	.

<表 4-6-4>

調 節 委 進 展 方 案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군사문제 우선토의	48	13.0	25	17.6	4	6.9	6	18.8
사회 · 경제 · 문화문제 우선	243	66.0	90	63.4	39	67.2	23	71.9
타기관으로의 발전적위임	15	4.1	7	4.9	3	5.2	·	·
전분과위의 기능발휘	48	13.0	17	12.0	5	8.6	3	9.4
아무래도 좋다.	3	0.8	1	0.7	1	1.7	·	·
회담할 필요없다.	10	2.7	2	1.4	6	10.3	·	·
무 응 답	1	0.3	·	·	·	·	·	·

<表 4-6-5>

調 節 委 進 展 方 案 (성 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군사문제 우선토의	64	12.4	19	22.4
사회 · 경제 · 문화문제 우선	349	67.8	46	54.1
타기관으로 발전적위임	21	4.1	4	4.7
전분과위 기능발휘	60	11.7	13	15.3
아무래도 좋다.	3	0.6	2	2.4
회담할 필요없다.	17	3.3	1	1.2
무 응 답	1	0.2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간추려 보자

① 「사회·경제·문화등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主張에 同調하는 率이 가장 많은 것은 40代의 72.1%이고 最少率은 60代의 37.5%이다. 60代는 他機関으로 発展的인 委任을 바라는 率이 37.5%나 되기 때문에 그러한 現象이 생긴 것이고 年代別 차는 거의 없다.

② 軍事問題 先議主張率의 最大率은 医師의 31.9%이고 最少率은 公務員의 7.8%인바 公務員의 경우는 그것이 北측의 主張이기 때문에 나타난 反応으로 보인다. 北측 主張에 対한 同調率과 우리측 주장에 대한 同調率은 正反対여서 우리측 주장에 대한 最大同調率은 公務員의 75.7%, 最少率은 医師의 55.5%이다.

③ 軍事問題 先議同調率의 最少率은 地域에 있어 光州의 6.9%인바 이 率은 다른 地域의 反応의 2分의 1 또는 3分의 1에 해당한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우리측 主張에의 同調率이 높고(54.1%에 비해 67.8%) 北측 主張에 대한 同調率이 얕다.(22.4%에 대해 12.4%)

第7節 赤十字会談展望

赤十字会談은 5個議題에 合意한 뒤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바 5個中 「其他事項」을 제외한 4個議題는 実現時間의 順序와도 맞먹는바 그 順序대로 「앞으로 어떤 사업까지 성취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와 같이 나타 났다.

<表 4-7-1>

赤十字会談展望 (전체)

비율 / 구분	명	%
회담자체의 실패	147	24.5
생사. 주소확인 실현	205	34.2
서신교류·면회 실현	159	26.5
상호방문 실현	67	11.2
가족 재결합의 실현	18	3.0
무 응 답	4	0.7

앞의 表 4-7-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第1段階(生死와 住所確認)로 부터 第2段階(書信交流, 面会), 第3段階(相互訪問), 第4段階(家族再結合)로 갈수록 그것의 実現可能率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즉 쉬운 事業이나 실현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1段階와 2段階에 집중되고 있으며 失敗할 것으로 보는 率도 相当하다.

이런 反応을 前의 調査와 비교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4-7-2>

赤十字会談展望変化

구분 \ 비율	본조사		72(지식인)		73(대학생)	
	명	%	명	%	명	%
회담자체의 실패	147	24.5	86	13.2	44	44
생사 및 주소확인	205	34.2	139	21.3	26	26
서신교류·면회실현	159	26.5	212	32.4	24	24
상호방문실현	67	11.2	99	15.1	4	4
가족재결합실현	18	3.0	33	5.2		
무응답	4	0.7				
모르겠다.			84	12.8		

<表 4-7-3>

赤十字会談展望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회담자체의 실패	48	26.23	53	24.54	29	20.71	17	32.08	·	·
생사주소확인실현	63	34.43	70	32.41	50	35.71	19	35.85	3	37.50
서신교류면회실현	48	26.23	52	24.07	42	30.00	13	24.53	4	50.00
상호방문실현	18	9.84	31	14.35	15	10.71	2	3.77	1	12.50
가족재결합의실현	6	3.28	7	3.24	4	2.86	1	1.89	·	·
무응답	·	·	3	1.39	·	·	1	1.89	·	·

<表 4-7-4>

赤 十 字 会 談 展 望

<직업별>

구분 \ 비율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의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회담자체의 실패	41	27.33	25	22.73	10	21.28	10	21.28	14	29.79	15	31.25	19	18.45	13	27.08
생사주소확인 실현	50	33.33	39	35.45	17	36.17	23	48.94	12	25.53	14	29.17	31	30.10	19	39.58
서신교류·면회실현	37	24.67	33	30.00	11	23.40	6	12.77	13	27.66	15	31.25	33	32.04	11	22.92
상호방문 실현	16	10.67	9	8.18	7	14.89	7	14.89	6	12.77	3	6.25	16	15.53	3	6.25
가족 재결합의의 실현	6	4.00	1	0.91	2	4.26	1	2.13	2	4.26	1	2.08	4	3.88	1	2.08
무응답	·	·	3	2.73	·	·	·	·	·	·	·	·	·	·	1	2.08

<表 4-7-5>

赤 十 字 会 談 展 望

(직업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회담자체의 실패	87	23.6	33	23.2	18	31.0	9	28.1
생사주소확인 실현	128	34.8	47	33.1	17	29.3	13	40.6
서신교류 면회실현	101	27.4	36	25.4	14	24.1	8	25.0
상호방문 실현	39	10.6	17	12.0	9	15.5	2	6.3
가족재결합의 실현	9	2.4	9	6.3	•	•	•	•
무 응 답	4	1.1	•	•	•	•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특징을 要約分析하기로 한다.

① 会談自体가 失敗할 것이라고 보는 率이 昨年보다 훨씬 늘어 13.2%에서 24.5%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며 6月調査된 大学生의 경우는 会談失敗率이 더욱 높아 44%나 되는바 이것은 対話進行이 순조롭게 되지 않은 結果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② 20代부터 50代까지의 경우를 보면 高令層일수록 悲観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어서 20代의 경우 26.2%인데 대해서 50代는 32.1%에 이르고 있다.

③ 職業別로 볼때 会談失敗観의 最高率은 言論人의 32.3%, 最低率은 18.5%로 나타났고 第1段階에 대한 最多同調는 文化芸術人의 48.9%이고 第2段階에 대한 最多同調는 言論人(31.3%)과 公務員(32.0%)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第 8 節　調節委展望

南北調節委員会가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대화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時点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성취시켜 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을 하였는바 그 反応은 다음 表4-8-1과 같다.

<表 4-8-1>

調節委展望 (全体)

구분 \ 비율	명	%
성과 거두지 못할것	128	21.3
경제, 문화교류 실현	196	32.7
정치교류 실현	32	5.3
대외공동보조 실현	94	15.7
군축, 평화협정체결	47	7.8
다른 기구로 발전해체	102	17.0
무응답	1	0.2

앞의 表에 나타나 있듯이 경제, 문화교류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3分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第2位의 反応은 아무런 成果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으로서 21.3%나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機構로 発展的인 解体를 할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17.0%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所属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4-8-2>

調節委展望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성과 거두지 못할것	41	22.40	36	16.67	31	22.14	20	37.74	.	.
경제 문화교류 실현	44	24.04	80	37.04	53	37.86	16	30.19	3	37.50
정치교류 실현	8	4.37	9	4.17	8	5.71	4	7.55	3	37.50
대외공동보조 실현	30	16.39	39	18.06	22	15.71	2	3.77	1	12.50
군축평화협정체결	19	10.38	12	5.56	10	7.14	5	9.43	1	12.50
다른기구로 발전해체	41	22.40	39	18.06	16	11.43	6	11.32	.	.
무 응 답	.	.	1	0.46	.	.	.	.	.	.

<表 4-8-3>

調 節 委 展 望

<직업별>

구분 \ 비율	대학생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의사		언론인		공무원		경제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과과거두지 못할것	33	22.00	18	16.36	16	34.04	121	25.53	8	17.02	10	20.83	21	20.39	10	20.83
경제·문화교류 실현	33	22.00	39	35.45	14	29.79	15	31.91	14	29.79	20	41.67	47	45.63	14	29.17
정치교류 실현	8	5.33	4	3.64	2	4.26	2	4.26	4	8.51	3	6.25	6	5.83	3	6.25
대외공동보조 실현	22	14.67	18	16.36	6	12.77	7	14.89	13	27.66	5	10.42	12	11.65	11	22.92
군축·평화협정체결	16	10.67	12	10.91	3	6.38	3	6.38	4	8.51	1	2.08	5	4.85	3	6.25
다른기구로 발전해체	38	25.33	18	16.36	6	12.77	8	17.02	4	8.51	9	18.75	12	11.65	7	14.58
무응답	·	·	1	0.91		·	·	·	·	·	·	·	·	·		·

<表 4-8-4>

調 節 委 展 望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성과 거두지 못할것	79	21.5	21	14.8	19	32.8	9	28.1
경제 . 문화교류 실현	126	34.2	45	31.7	17	29.3	8	25.0
정치교류 실현	15	4.1	15	10.6	1	1.7	1	3.1
대외공동보조 실현	57	15.5	23	16.2	8	13.8	6	18.8
군축 . 평화협정체결	23	6.3	19	13.4	2	3.4	3	9.4
다른기구로 발전해체	67	18.2	19	13.4	11	19.0	5	15.6
무응답	1	0.3	.	.	.	.	.	.

<表 4-8-5>

調 節 委 展 望

(성 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성과거두지 못할것	107	20.8	21	24.7
경제 . 문화교류 실현	180	35.0	16	18.8
정치교류 실현	29	5.6	3	3.5
대외공동보조 실현	70	13.6	24	28.2
군축 . 평화협정체결	41	8.0	6	7.1
다른기구로 발전해체	88	17.1	14	16.5
무응답	.	.	1	1.2

앞의 表들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간추려 본다.

① 年代別로 볼때 失敗할 것으로 보는 最多率은 50代의 37.7%이고 最少率은 30代의 16.7%이다. 經濟文化交流가 実現될 것으로 보는 率은 30代~60代는 30%以上인데 20代만이 24.0%라는 낮은 率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층은 他機構를 発展解体할 것이라는 意見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② 職業別로 볼때 失敗할 것이라는 最多率은 法曹人의 34.0%이고 最少率은 教育者와 医師의 16.4%와 17.0%이며 經濟, 文化交流가 이룩될 것이라는 意見의 最多率은 言論人(41.7%)과 公務員(45.6%)이고 最少率은 大学生의 22.0%이고 他機関으로의 発展的 解体意見의 最大率은 大学生의 25.3%이고 最少率은 医師의 8.5%이다. 이것은 大学生이 調節委보다 다른 機関을 생각하고 있다는 第1章 第5節과도 상통한다.

③ 地域別로는 다른 項目에서는 큰 差가 없으나 失敗할 것이라는 項에서만은 最多率인 光州(32.8%)와 最少値인 釜山(14.8%)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性別로는 經濟文化交流에 있어 男子(35.0%)는 女子(18.8%)의 倍数에 가까운 意見을 보이고 反対로 対外共同歩調에 있어서는 女子(28.2%)가 男子(13.6%)의 倍数에 이른다.

第 4 章　　6·23 宣言에 관한 意見

第4章 6·23宣言에 관한 意見

第1節 6·23 宣言賛反

朴正熙大統領은 지난 6月23日 「平和統一 外交宣言」을 통해서 「UN에의 北韓加入」에 反対치 않으며 「共産国에의 門戸開放」을 촉구하는등의 内容을 발표했는바 이것이 「의의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와 같다.

<表5-1-1>

6·23 宣言 賛反(전체)

구분 \ 비율	의의가 있다	의의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명	499	66	33	2
%	83.2	11.0	5.5	0.3

앞의 表5-1-1과 같이 意義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大部分으로 83.2%나 되고 意義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은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賛成(意義가 있다)하는 理由와 反対(意義가 없다)하는 理由는 다음 表와 같다.

<表 5-1-2>

6·23 선언 찬성이유 (전체)

비율 / 구분	북한에대한 주도권확보	전쟁방지에 도움	공산국가와 관계개선	통일에 도움을 준다	기타	계
명	108	53	233	104	11	499
%	21.64	10.62	44.69	20.44	2.20	

<表 5-1-3>

6·23 선언불찬성이유 (전체)

구분 / 비율	북한의 국제진출 증대	북한이 제의에 불응	공산국가와의 관계개선 불능	두개의 한국론 정당화	분단의 고정화	기타
명	9	17	8	14	15	3
%	13.64	25.76	12.12	24.04	22.73	4.55

앞의 두개의 表 즉 贊成과 反対理由에 나타난 몇가지의 特徵을 간추려 본다.

① 499名의 6.23宣言贊成者中 거의 半数에 이르는 44.7%의 知識人이 6.23宣言이 共産国과의 関係改善에 도움을 줄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6.23宣言을 南北関係와 統一問題에 관련시켜 해석하려하기 보다 国際関係와 관련지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反対論者가 내세우는 理由에는 어떤 集中的인 것이 없고 北

韓의 不受諾, 2個韓国論正当化, 分断固定化등이 거의 비슷한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分断化(2個韓国論正当化와 分断固定化)를 우려하기 때문에 6·23宣言에 反対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所屬別의 贊反率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5-1-4>

6·23 선언 찬반 (연령별)

비율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의의가 있다	136	74.32	188	87.04	125	89.29	43	81.13	7	87.50
의의가 없다	31	16.94	20	9.26	8	5.71	7	13.21	–	–
모르겠다	15	8.20	8	3.70	7	5.00	3	5.66	–	–
무응답	1	0.55	–	–	–	–	–	–	1	12.50

<表 5 - 1 - 5>

6・23 선언 찬반 (직업별)

비율 \ 구분		의의가있다	의의 가없다	모르겠다	무 응 답
대학생	명	110	27	12	1
	%	73.33	18.00	8.00	0.67
교육자	명	97	10	3	-
	%	88.18	9.09	2.73	-
법조인	명	36	8	3	-
	%	70.60	17.02	6.38	-
문화, 예술인	명	42	3	2	-
	%	89.36	6.38	4.26	-
의 사	명	35	6	5	1
	%	74.47	12.77	10.64	2.13
언론인	명	40	3	5	-
	%	83.33	6.25	10.42	-
공무원	명	99	3	1	-
	%	96.12	2.91	0.97	-
경제인	명	40	6	2	-
	%	83.33	12.50	4.17	-

<表 5 - 1 - 6>

6・23 선언 찬반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의의가 있다	298	81.0	127	89.4	46	79.3	28	87.5
의의가 없다	41	11.1	10	7.0	11	19.0	4	12.5
모르겠다	27	7.3	5	3.5	1	1.7	-	-
무응답	2	0.5	-	-	-	-	-	-

<表 5 - 1 - 7>

6・23 선언 찬반 (성별)

구분 \ 비율	남자		여자	
	명	%	명	%
의의가있다	437	84.9	62	72.9
의의가없다	53	10.3	13	15.3
모르겠다	23	4.5	10	11.8
무응답	2	0.4	-	-

<表 5 - 1 - 8>

6·23 선언 찬성이유 (직업별)

구분 / 비율		북한에 대한 주도권확보	전쟁방지에 도움	공산국가와 관계개선	통일에 도움을 준다	기 타
대학생	명	8	12	72	13	5
	%	7.27	10.91	65.45	11.82	4.55
교육자	명	26	11	36	23	1
	%	27.08	11.46	37.50	22.92	1.04
법조인	명	8	4	12	11	1
	%	22.22	11.11	33.33	30.56	2.78
문화·예술인	명	7	7	13	15	-
	%	17.37	17.37	31.71	34.15	-
의 사	명	9	3	13	9	1
	%	25.71	8.57	37.14	25.71	2.86
언론인	명	11	7	17	5	-
	%	27.50	17.50	42.50	12.50	-
공무원	명	34	8	37	18	2
	%	34.34	8.08	37.37	18.18	2.02
경제인	명	5	1	23	10	1
	%	12.50	2.50	57.50	25.00	2.50

所屬別로 나타난 特徵을 간추려 제시하기로 한다.

① 20代가 다른 年代보다 훨씬 낮은 比率로 宣言에 贊成하고 있어서 最大値인 40代의 89.3%에 대해 73.3%이며 따라서 20代의 反対率도 다른 年代보다 높아 最小値인 40代의 5.7%에 대해 16.9%나 된다.

② 職業別로는 公務員의 贊成率이 가장 높아 大学生의 73.3%에 대해 96.1%나 된다 이는 大学生이 언제나 政府批判的이고 公務員이 政府에 肯定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反対의 最高値는 大学生의 18.0%이고 最小値는 公務員의 2.9%가 되었다.

③ 地域別의 反応上의 差異는 크게 나타 나지 않고 있으나 光州의 경우 다른 地域보다 反対率이 높아 最小値인 釜山의 7.0%에 대해 19.0%에 이르고 있다.

④ 男子가 女子보다 贊成率이 훨씬 높은데 이러한 差異가 생긴 근본은 女子의 경우 D.K率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贊成理由도 北韓에 대한 主導權掌握때문이라는것에 公務員(34.3%)과 学生(7.3%)은 큰 差가 있고 戰爭防止때문이라는 理由를 経済人은 2.5%밖에 들지 않고 있다. 統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最大率이 文人(34.2%)에 대해 大学生은 11.8%에 不過하다.

第2節　6・23宣言을 反対한 北韓態度

6月 23日에 있은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에 대해서 北韓側은 간접적이지만 이를 반대하고 나섰는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北韓의 態度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5-2-1과 같다.

<表5-2-1>　6・23宣言 反対한 北韓態度(전체)

비율 \ 구분	차츰 받아들일것	끝까지 묵살할것	분단책임 전가열중	모르겠다	무응답
명	259	99	192	49	1
%	43.2	16.5	32.0	8.2	0.2

앞의 表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느 특정항목에 집중적인 의견제시를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의를 「차츰 받아 들일것」이라고 본 사람(43.2%)과 「分断責任을 전가하기에 熱中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32.0%)이 많다.

그러면 그것이 所屬別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음 表로 제시하기로 한다.

<表5-2-2>　6・23宣言 反対한 北韓態度

(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차츰받아들일것	75	40.98	95	43.98	64	45.71	23	43.40	2	25.00
끝까지 묵살할것	28	15.30	37	17.13	19	13.57	13	24.53	2	25.00
분단책임 전가열중	62	33.88	67	31.02	47	33.57	13	24.53	3	37.50
모르겠다	18	9.84	16	7.41	10	7.14	4	7.55	1	12.50
무응답			1	0.46						

<표 5-2-3>

6·23宣言 反対한 北韓態度

(직업별)

구분 / 비율		차츰 받아들일것	끝까지 묵살할것	분단책임 전가열중	모르겠다	무응답
대학생	명	64	20	51	15	
	%	42.67	13.33	34.00	10.00	
교육자	명	50	19	31	9	1
	%	45.45	17.27	28.18	8.18	0.91
법조인	명	23	8	10	6	
	%	48.94	17.02	21.28	12.77	
문화 예술인	명	14	16	15	2	
	%	29.79	34.04	31.91	4.26	
의사	명	15	6	20	6	
	%	31.91	12.77	42.55	12.77	
언론인	명	20	8	17	3	
	%	41.67	16.67	35.42	6.25	
공무원	명	55	14	28	6	
	%	53.40	13.59	27.18	5.83	
경제인	명	18	8	20	2	
	%	37.50	16.67	41.67	4.17	

<表 5-2-4> 6·23 宣言 反対한 北韓態度

(지역별)

비율 구분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차츰 받아들일것	151	41.0	68	47.9	24	41.4	16	50.0
끝까지 묵살할것	65	17.7	21	14.8	9	15.5	4	12.5
분단책임 전가열중	119	32.3	42	29.6	20	34.5	11	34.4
모르겠다	32	8.7	11	7.7	5	8.6	1	3.1
무 응 답	1	0.3						

<表 5-2-5> 6·23선언 반대한 북한태도

(성별)

비율 구분	남자		여자	
	명	%	명	%
차츰 받아들일것	233	45.2	26	30.6
끝까지 묵살할것	76	14.8	23	27.1
분단책임 전가열중	166	32.2	26	30.6
모르겠다	40	7.8	9	10.6
무 응 답			1	1.2

앞의 表들에 나타난 특징들을 간추려 보자.

① 60代는 北韓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수가 다른 年代의 40%以上보다 훨씬 낮은 25.0%에 불과한바 이것은 60代의 대北不信感의 強度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다.

② 職業別로 볼때 6·23宣言을 北韓이 차츰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最高率은 公務員의 53.4%이고 最少率은 文化芸術人의

29.8%이다.

③ 北韓의 将次의 態度에 대한 地域別 反応의 差는 거의 없고 다만 春川의 경우 「차츰 받아들일 것」이라는 意見이 약간 많이 나왔을 뿐이다.

④ 男子는 女子보다 北韓이 6.23宣言에 응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많으며 女子는 北韓이 끝까지 묵살할 것이라는 의견을 男子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第 3 節 UN에서의 地位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이 「UN에의 北韓加入의 不反対」를 내세운 지금 「UN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表 表3-5-1과 같이 나타났다.

<表5-3-1> UN에서의 地 位

(전체)

구분 / 비율	남한만 가입	남북한 가입	남한만 초청	남북한 초청	모르겠다	무응답
명	16	240	26	279	37	2
%	2.7	40.0	4.3	46.5	6.2	0.3

앞의 表에서 볼수 있듯이 「南北韓이 모두 초청」될 것이라는 의견과 「南北韓이 모두 加入」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46.5%와 40.0%를 차지하고 単独招請이나 単独加入의 의견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아마도 6.23宣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前에 실시한 調査結果와 비교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5 - 3 - 2>

U N에서의 地位觀変化

구 분 \ 비 율	본 조 사		72 (지식인)		71 (지식인)	
	명	%	명	%	명	%
남한만 가입	16	2.7	77	11.8		
남북한 가입	240	40.0	150	22.9		
남한만 초청	26	4.3	58	8.9	43	3.9
남북한 초청	279	46.5	268	41.0	431	38.8
모르겠다	37	6.2	101	15.4	320	28.8
무 응 답	2	0.3			22	2.0
기 타						
분단국의 가입					245	22.0

앞의 表에서 보듯이 U N에서의 地位에 대한 評価는 前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고 있다.

① 単独加入 및 単独招請率이 훨씬 줄었다. 加入의 경우 昨年의 11.8 %에서 2.7 %로 招請의 경우 8.9 %에서 4.3 %로 크게 줄었다.

② 南北韓이 모두 加入될 것이라는 比率이 크게 늘었는바 이는 6 · 23 宣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表 5 - 3 - 3>

U N에서의 地 位

(연령별)

구 분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남한만 가입	5	2.73	4	1.85	5	3.57	1	1.89	1	12.50
남북한 가입	66	36.07	96	44.44	56	40.00	20	37.74	2	25.00
남한만 초청	4	2.19	10	4.63	7	5.00	5	9.43		
남북한 초청	99	54.10	93	43.06	62	44.29	21	39.62	4	50.00
모르겠다	8	4.37	12	5.56	10	7.14	6	11.32	1	12.50
무 응 답	1	0.55	1	0.46						

<表 5 - 3 - 4>　UN에서의 地 位

(직업별)

구분 / 비율		남한만 가입	남북한 가입	남한만 초청	남북한 초청	모르겠다	무응답
대학생	명	4	56	3	78	8	1
	%	2.67	37.33	2.00	52.00	5.33	0.67
교육자	명	2	59	7	36	6	
	%	1.82	53.64	6.36	32.73	5.45	
법조인	명	1	16	2	27	1	
	%	2.13	34.04	4.26	57.45	2.13	
문화 예술인	명	2	13	4	23	5	
	%	4.26	27.66	8.51	48.94	10.64	
의사	명	3	19	2	20	3	
	%	6.38	40.43	4.26	42.55	6.38	
언론인	명		22	2	21	3	
	%		45.83	4.17	43.75	6.25	
공무원	명	3	38	4	50	7	1
	%	2.91	36.89	3.88	48.54	6.80	0.97
경제인	명	1	17	2	24	4	
	%	2.08	35.42	4.17	50.00	8.33	

<表 5-3-5> UN에서의 地位

(지역별)

비율 / 구분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남한만 가입	8	2.2	4	2.8	4	6.9		
남북한 가입	150	40.8	46	32.4	26	44.8	18	56.3
남한만 초청	17	4.6	7	4.9	1	1.7	1	3.1
남북한 초청	170	46.2	73	51.4	24	41.4	12	37.5
모르겠다	23	6.3	12	8.5	2	3.4		
무응답					1	1.7	1	3.1

앞에 제시한 UN에서의 地位에 대한 所屬別 反応에서 두드러진 것만 간추려 본다.

① 60代는 南韓만 加入될 것이라는 意見을 다른 年代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 12.5%에 이르고 南北韓이 모두 加入될 것으로 보는 最多率은 30代의 44.4%이며 最少率은 60代의 25%이다.

② 南北韓 모두 가입될 것으로 보는 最多率은 教育者의 53.6%이고 最少率은 文化芸術人의 27.7%이다.

③ 地域別 特徵으로는 春川의 경우가 다른 地域보다 南北韓加入에 대한 同調率이 높아 最少値인 釜山의 32.4%에 대해 56.3%나 된다.

第 4 節 언커크解体与否

政府는 6.23宣言을 계기로 하여 「언커크」解体問題에 대한 伸縮性을 보여 「유엔」의 決定에 따르겠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즉 UN에서 派遣한 두개의 実体(UN軍과 언커크)中 UN軍解体에는 積極的 反対를 표명하고 언커크解体 反対에는 消極的인바 知識人은 어떤 意見을 가졌는가를 다음 表에서 보기로 하자.

<表 5-4-1> 언커크解体与否

구분 / 비율	곧 해체해야 한다	있어도 없어도 좋다	당분간 해체불가	유엔결의시 해체좋다	통일시까지 해체불가	무응답
명	-	36	162	192	204	6
%	-	6	27	32	34	1

앞의 表에서 보듯이 당분간은 解体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統一時까지는 안된다는 것 및 UN이 決議면 解体해도 좋다는 것등이 비등한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時限性없이 UN決議時는 언제든지 解体해도 좋다는 32%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6%와도 相通된다는 점에서 「언커크」에 重要性을 부여치 않는 사람이 3分의 1이 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27%) 또는 統一時(34%)까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는 61%가 언커크의 重要性을 인정하는 層이라고 하겠다.

이는 UN軍撤収의 당분간 안된다(42.8%)는 것과 統一時까지 안된다는 것(48.8%)에 비하여 크게 적은 数値인 것이다.

즉, 언커크는 UN軍보다 重要度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5 章　　対備態勢에　관한　意見

第5章 対備態勢에 관한 意見

第1節 平和達成方案

「韓半島에서 戦争을 예방하고 平和를 達成하려면 어떤 일에 치중해야 하겠느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表6-1-1과 같았고 그것은 表6-1-2와 같이 前의 調査와 差異를 보이고 있다.

<表6-1-1>

平和達成方案(全体)

구분 / 비율	북한과 접촉계속	4대국의 평화보장	남북간의 평화협정	우리 자체의 대비	미국과의 유대강화	모르겠다	무응답
명	70	71	80	362	9	6	2
%	11.7	11.8	13.3	60.3	1.5	1.0	0.3

앞의 表에서 보듯이 이번의 調査에서는 韓半島의 平和가 自体安保力量의 保有에 의해서 確保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過半数인 60.3%에 이르고 美国과의 紐帯強化는 不過 1.5%밖에 안된다.

이것은 主体意識이 増大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를 지난 調査들과 比較하면 다음 表6-1-2와 같다.

<表6-1-2>

平和達成方案의 変化

구분 \ 비율	본 조 사		73 (대학생)		72 (지식인)	
	명	%	명	%	명	%
북한과 접촉계속	70	11.7	6	6	46	7.0
4대국의 평화보장	71	11.8	10	10	35	5.3
남북간의 평화협정	80	13.3	10	10	90	13.8
우리자체의 대비	362	60.3	72	72	468	71.6
미국과의 유대강화	9	1.5				
모르겠다	6	1.0			11	1.7
무응답	2	0.3				
기 타			2	2	4	0.6

앞의 表에서 몇가지의 特徵的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즉「自体의 確固한 対備」라는 응답수가 昨年 및 今年 6月의 調査때 보다 많이 줄고「北韓과의 接触」이다.

四大国保障論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제 6.23宣言後에는 韓半島의 平和가 軍事次元에서 보다는 外交次元에서 処理되어야 한다고 知識人은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表6-1-3>

平和達成方案(연령별)

구분 \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북한과 접촉계속	25	13.66	23	10.65	14	10.00	6	11.32	2	25.00
4대국의 평화보장	18	9.84	26	12.04	14	10.00	13	24.53	-	-
남북간의 평화협정	30	16.39	24	11.11	19	13.57	3	5.66	4	50.00
우리자체의 대비	105	57.38	138	63.89	86	61.43	31	58.49	2	25.00
미국과의 유대강화	2	1.09	2	0.93	5	3.57	-	-	-	-
모르겠다	2	1.09	3	1.39	1	0.71	-	-	-	-
무응답	1	0.55	-	-	1	0.71	-	-	-	-

<表 6-1-4>

平和達成方案 (직업별)

구분 \ 비율		북한과 접촉계속	4대국의 평화보장	남북간의 평화협정	우리 자체의 대비	미국과의 유대강화	모르겠다	무응답
대학생	명	23	15	24	83	2	2	1
	%	15.33	10.00	16.00	55.33	1.33	1.33	0.67
교육자	명	13	16	15	65	1	-	-
	%	11.82	14.55	13.64	59.09	0.91	-	-
법조인	명	7	5	3	30	1	1	-
	%	14.89	10.64	6.38	63.83	2.13	2.13	-
문화예술인	명	6	5	5	28	2	-	1
	%	12.77	10.64	10.64	59.57	4.26	-	2.13
의사	명	7	3	13	20	2	2	-
	%	14.89	6.38	27.66	42.55	4.26	4.26	-
언론인	명	7	8	4	28	1	-	-
	%	14.58	16.67	8.33	58.33	2.08	-	-
공무원	명	4	14	11	74	-	-	-
	%	3.88	13.59	10.68	71.84	-	-	-
경제인	명	3	5	5	34	-	1	-
	%	6.25	10.42	10.42	70.83	-	2.08	-

<表 6-1-5>

平和達成方案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북한과 접촉계속	48	13.0	18	12.7	4	6.9	-	-
4대국의 평화보장	36	9.8	20	14.1	9	15.5	6	18.8
남북간의 평화협정	49	13.3	20	14.1	5	8.6	6	18.8
우리 자체의 대비	244	60.9	81	57.0	37	63.8	20	62.5
미국과의 유대강화	5	1.4	2	1.4	2	3.4	-	-
모르겠다	4	1.1	1	0.7	1	1.7	-	-
무응답	2	0.5	-	-	-	-	-	-

앞에 제시한 表들에서 平和達成策에 대한 所屬別 特徵을 살펴본다.

① 20代와 60代가 같은 意見을 가지고 있는바 南北接觸에 대한 意見이 20代(13.7%)와 60代(25.0%)에서 많이 나왔고 南北平和協定論도 역시 60代(50.0%)와 20代(16.4%)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② 職業別로 볼 때 南北接觸을 平和方便으로 생각하는 最多率은 大学生의 15.3%이고 最少率은 公務員의 3.9%이며 四大国保障論의 最大賛成率은 言論人(16.7%)에서 뛰어나며 南北平和協定이 平和의 条件으로 보는 最多値는 医師의 27.7%와 最少値는 法曹人의 6.4%로 큰 差를 보였고 自体力量強化에 대한 最大率은 公務員의 71.8%와 医師의 42.5%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春川人은 다른 地域民에 두드러지게 4大国保障과 平和協定을 要求하고 있다.

第 2 節　外交의　重点方向

6.23宣言은 그 自体가 平和統一外交宣言이듯이 이제는 外交에 대한 活動이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될 것인바 「앞으로 어떤 外交活動이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 다음 表 6-2-1과 같은 반응을 얻었다.

<表 6-2-1>

外交活動의 重点方向 (전체)

구분 / 비율	유엔군철수 방지활동	유엔에의남북가입활동	우방의대북 승인억제	공산국과의 관계개선	무응답
명	88	73	62	375	2
%	14.7	12.2	10.3	62.5	0.3

앞의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共産国과의 関係改善」을 하기 위한 活動이 時急하다고 보는 사람이 過半数를 훨씬 넘어 62.5 %나 된다.

6.23宣言이 주로 UN과 관련되는 것인데도 UN과 관련된 것은 UN軍 撤収防止와 UN南北加入까지 포함해도 26.9 %에 불과하다.

이를 소속별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6-2-2 >

外交活動의 重点方向

<연령별>

구분 \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유엔군철수방지활동	13	7.10	23	10.65	41	29.29	11	20.75	–	–
유엔에의남북가입활동	24	13.11	26	12.04	13	9.29	8	15.09	2	25.00
우방의대북승인억제	17	9.29	26	12.04	11	7.86	4	7.55	4	50.00
공산국과의관계개선	129	70.49	141	65.28	75	53.57	29	54.72	1	12.50
무 응 답	–	–	–	–	–	–	1	1.89	1	12.50

<表 6-2-3 >

外交活動의 重点方向

<직업별>

비율 \ 구분		유엔군철수 방지 활동	유엔에의 남북가입활동	우방의대북 승인 억제	공산국과의 관계 개선	무 응 답
대학생	명	9	18	13	110	–
	%	6.00	12.00	8.67	73.33	–
교육자	명	17	14	8	71	–
	%	15.45	12.73	7.27	64.55	–
법조인	명	9	3	11	24	–
	%	19.15	6.38	23.40	51.06	–
문화 예술인	명	6	2	8	31	–
	%	12.77	4.26	17.02	65.96	–
의 사	명	11	8	3	24	1
	%	23.40	17.02	6.38	51.06	2.13
언론인	명	11	5	5	27	–
	%	22.92	10.42	10.42	56.25	–
공무원	명	17	16	11	58	1
	%	16.50	15.53	10.68	56.31	0.97
경제인	명	8	7	3	30	–
	%	16.67	14.58	6.25	62.50	–

<表 6-2-4>

外交活動의 重点方向

<지역별>

구분 \ 비율	서울		부산		광주		춘천	
	명	%	명	%	명	%	명	%
유엔군철수방지활동	56	15.2	18	12.7	8	13.8	6	18.8
유엔에의 남북가입활동	42	11.4	19	13.4	5	8.6	7	21.9
우방의대북승인억제	31	8.4	19	13.4	8	13.6	4	12.5
공산국과의 관계개선	237	64.4	86	60.6	37	63.8	15	46.9
무응답	2	0.5	-	-	-	-	-	-

앞의 表들에 나타난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年代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高令層(40~50代)은 20~30代보다 UN軍撤収防止活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 40代의 경우는 20代의 7.1%에 대해 29.3%나 된다.

青年層일수록 UN加入活動이 시급하다고 보는 率이 높으며 共産国과의 関係改善이 시급하다고 보는 最多率은 20代의 70.5%이고 最少率은 60代의 12.5%로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② 職業別로는 UN軍撤収防止에 대한 最多率은 医師와 言論人에서 23.4%와 22.7%로 나타났고 最少率은 大学生의 6.0%이다.

UN에의 南北加入에 대한 最大率은 医師(17.0%)에게서 最少率은 文化芸術人(4.3%)에게서 볼수 있다. 友邦의 対北承認抑制에 대해서는 法曹人이 最多率(23.4%)이고 経済人이 最少率(6.3%)이다. 共産圏과의 関係改善에 대해서는 大学生이 다른 職業보다 월등히 많은 反応을 보이고 있어 最少率인 法曹人의 51.0%에 비하여 73.3%라는 差를 보이고 있다.

③ 南北国聯加入에 대해서 光州民은 다른 地域民보다 훨씬 적은 8.6%밖에 안되며 春川은 21.9%나 된다. 또한 春川은 共産国과의 関係改善에는 다른 地域民보다 훨씬 적은 反応을 보이고 있다.

第3節 UN外交의 方向

今年 가을에 있을 UN総会에 우리가 어떤 提議 또는 態度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意見을 任意記述토록 했는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에 제시한 各項目에 대한 비율에는 1人이 2個이상의 意見을 제시한 것도 포함된다.

最大頻度의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여 본다.

①	南北韓 同時加入	33.3 %
②	南北韓 同時招請	10.0 %
③	平和統一確認	6.6 %
④	UN監視下 総選再確認	6.6 %
⑤	UN軍 存続決定	6.6 %
⑥	6.23宣言理解促求	6.6 %
⑦	単独加入	6.6 %
⑧	戦争防止決議	5.0 %
⑨	唯一合法性確認	5.0 %
⑩	언커크存続確認	3.3 %
⑪	南北対話支持決議	3.3 %
⑫	分断(2個国化)不認確約	1.7 %
⑬	北韓専門機構加入沮止	1.7 %
⑭	언커크解体同意	1.7 %
⑮	UN통한 相互不侵確約	1.7 %

앞의 意見들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에게 一方的으로 有利하거나 現実性이 적은 ④, ⑦, ⑨, ⑩, ⑬등의 意見提示가 全体中의 4分의 1을 차지하고 있는바 結局 4分의 1이 6.23宣言의 内容과는

反対되는 方向의 意見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6.23宣言이 意義가 있다고 하는 比率이 83.2%(表5-1-1参照)나 됨에도 불구하고 4分의 1이 딴 意見을 제시(記述)하고 있다는 것은 6.23宣言의 内容이나 精神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宣言에 支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重大한 問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한편 政府가 今年 UN総会에서 戦略으로 구상하고 있는 ① 南北韓 同時加入 ② UN軍存続 ③ 언커크 活動中止등의 세가지 内容을 그대로 제시한 사람은 極少数였고 同時加入과 UN軍存続의 두項을 意見으로 記述한 사람은 몇사람 있었다.

知識人이 어떤 意見形成을(UN問題에 대한)하고 있지 못함이 확실하다.

第 3 部　結　論（問題点）

第 1 章　基本的 問題点 161

第 2 章　項目別 問題点 164

第1章 基本的 問題点

1. 階層間의 뚜렷한 見解差

職業別 意見의 差가 뚜렷하다는 点이다. 特히 大学生을 한편으로 하고 医師와 法曹人 및 文芸人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意見差가 形成되는 일이 많았다. 大学生의 경우는 거의 大部分의 項目에서 前向的인 意見 또는 政府案이 아닌 것에 대한 指向性이 強했고 医師와 法曹人은 「安定」과 「平和」등에게는 예민하게 그것을 追求하면서 保守性向을 보였으며 文芸人은 冷戰的 思考 또는 積極反共的인 意見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国際情勢에는 大学生이 가장 現実感覚이 높게 이해하고 適応하고 있었으나 北韓主張에의 同調性向이 높았으며 文芸人이 가장 適応度가 낮았다.

이러한 職業間의 意見差는 그들이 社会속에서 차지하는 位置와도 関聯되겠지만 政策樹立家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一律的인 弘報方式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2. 相当数의 北韓同調

北韓側이 내세우는 統一 및 南北関係解決方案에 相当数가 同調하고 있다는 点이다. 統一方案에서의 聯邦制案에 11.2%, 統一接近方法에 있어서 政治, 軍事先決論에 17.2%, 北韓社会에 대한 好意的 反応(짜임새 있는 社会)이 7.7%, 調節委会談方向에서의 平和協定등 軍事問題의 優先討議論에 13.8% 및 全分科委의 構成에 12.2%, 平和協定締結論에 13.3%등이 그것이다.

즉 北韓側이 내세운 統一 및 対話進行方案에 대해서 12%~

17 %가 同調하고 北韓社会에 好意的인 率도 약간 있다는 것이다.

勿論 共産統一에는 600名中 単 1名만이 同調하고 北韓住民이 우리보다 더잘 산다는 率은 0.5%(3名)에 지나지 않으며 北韓의 모든 形態의 南侵이 없을 것이라는 数는 0.7%(4名)에 不過하다. 즉 直接的인 好意 또는 積極同調者는 없으나 間接同調 또는 非積極的 反共層이 知識人中 10% 内外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現象은 北韓의 主張에 妥当性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社会教育手段이나 学校를 통한 政治教育에 어떤 虚点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統一念願과 現実의 間隔

強한 統一에의 期待가 現実水準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90%에 이르는 사람이 統一을 念願하고 있으며 特히 23.2%의 知識人은 「統一된다면 戦争도 甘受」할 정도로 統一을 熱望하고 있다.

이러한 希求度 때문에 大部分의 知識人은 対話가 不振하다(77.2%)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念願과 現実間에 큰 거리가 存在한다.

이러한 間隔의 存在는 結局 知識人으로 하여금 統一諦念論者로 만들거나 政府에 대한 攻撃性向者로 만들게 된다는 점에 問題는 深刻하다고 보아야 한다.

統一諦念論에 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対政府批判性向은 本調査에서도 약간의 根拠가 보이고 있는바, 6.23宣言에 대한 賛成率 83.2%를 除外하고는 政府가 主張했던 또는 指向하는 것에 대한 支持率에 있어 70%를 넘는 것이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 統一諦念論의 增大現象

期待水準과 現実水準間의 不一致가 統一諦念論者를 낳게 하는바이 諦念論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点이다. 統一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数가 昨年 調査때의 3.1%에서 13.7% 또는 5.7%로(表 2-1-1 및 2-6-2)늘어 났으며 赤十字会談이 失敗할 것으로 보는 率도 昨年의 13.2%에서 24.5%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調節委会談이 成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21.3%와 거의 비슷한 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諦念論 또는 南北対話不期待論이 크게 늘어난 것은 73年에 보이기 시작한 南北対話過程에서의 雙方의 뚜렷한 見解差異와 国際情勢의 現状維持性向등이 知識人에게 投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第2章 項目別 問題点

① 統一方案에 대해서 選挙에 의한 統一方式이 減少하고 있다. 72年의 경우 80.1%이던 것이 本調査에서는 59.1%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大学生은 選挙統一에 36.7%밖에 찬성치 않고있으며 聯邦制에 17.3%가 지지하고 있다.

② 統一国家의 社会体制를 非自由体制로 想定하는 것이 32.7%나 되는데 法曹人과 医師의 경우는 自由民主体制固守性이 강하지만 大学生의 경우는 44.6%가 非自由体制도 統一이 된다면 받아들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現象은 大学生은 純粹民族論에 따르는 統一念願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것 같다. 戦争이 있어도 統一은 돼야한다는 것에 平均的으로 23.2%가 찬성하고 있으나 大学生은 33.3%나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③ 統一을 해결할수 있는 機関으로 北韓이 주장하는 民族会議(또는 南北政府代表者会議)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対話를 주도하고 있는 調節委나 UN 또는 四大国会議등은 統一을 해결할수 있는 機関으로 크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不統一要素로 強大国責任論을 폈던 주장이 72年의 43.4%에서 21.7%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統一問題에 대한 「民族責任 意識」이 증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調節委는 統一解決機関이라기 보다는 過渡的 기관이라는 認識을 하고있다는 것을 反映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④ 早期統一論이 後退(10年内 可能하다는 意見이 71年에 33.5%

던 것이 72年에는 18.4%, 73年에는 10.4%)한 대신에 悲觀論이 늘어나 統一不能論者가 13.7%나 된다.

⑤ 統一順序 및 調節委会談의 進展方案에 대해서 北韓側主張에 同調하는 率이 17.2%와 13.8%나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른 項目과는 달리 平和協定, 戰爭予防 등과 관련되는 軍事問題를 先決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된 이들 項目에서는 医師, 法曹人, 文芸人, 経済人등 保守性向이 강한 職種에서 北韓側主張에 많이 同調하고 있다는 것이 特色이다.

이것은 이들 職種人들이 「安定」된 状態下에서의 生業을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⑥ 国際情勢 및 北韓意図에 대한 認識에 있어서는 더욱 現実化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四强接近은 韓半島의 現状維持(固定)化를 촉진한다고 보는 率이 72年의 31.3%에서 53.7%로 증대했고 北韓의 共匪浸透憂慮表明이 72年의 15.6%에서 36.5%로 全面南浸憂慮表明이 15.3%에서 23.5%로 늘어나고 있다.

後者는 対話過程에서도 間諜浸透와 休戰線上에서의 銃擊事件에 자극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 있고 前者는 四强의 関係改善에 따르는 現状固定的 状況展開때문에 나타났다고 할수 있다.

⑦ 北韓을 否定的으로 보는 수(生気가 없다)는 72年의 18.6%에서 12.0%로 줄고 南北韓이 비슷한 生活을 한다고 보는 率이 增大(69年의 3.7%에서 71年의 4.2%, 72年의 11.3%, 73年의 17.0%)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現象은 어느 점에서는 北韓에 대한 생각이 現実化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問題가 안된다고 할수 있으나 甘受性이 강한 大学生의 이러한 思考는 그대로

넘길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⑧ 北韓住民에 대한 說得自信度는 72年의 44.5%에서 65.2%로 증대하고 있으나 北韓社会의 自由化는 交流가 本格化된 후 数年이 있어야 変化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交流時의 脆弱層으로서 거의 半数인 45.0%가 都市下層民을 들고 있고 青年層을 들고 있는 것은 34.5%에 이른다. 이것은 都市下層民에 대한 重点施策이 必要함을 示唆한다는데서 큰 뜻을 지닌다.

⑨ 現存하는 両対話機構의 대화에 대한 信頼度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両機構에 의한 対話継続을 주장하는 의견이 50.2%에 不過하며 調節委와 赤十字会談이 失敗할 것이라는 意見이 21.3%와 24.5%나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対話가 너무 不振하다는 意見(77.4%)을 고려할때 자연적인 帰結이라고 할수 있는바 새로운 進展이 必要할듯 하다.

⑩ 6.23宣言에 多数가 찬성하고 있지만 11.0%가 反対하고 反対理由中 두드러진 것이 現状固定의 憂慮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弘報政策에 어떤 虚点이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問題視 될수있다.

⑪ UN同時加入에 肯定的인 反応이 72年의 22.9%에서 40.0%로 늘고 統一時까지의 美軍駐屯을 바라는 率이 36.3%에서 48.8%로 増大하고 있으나 政府가 構想하는 언커크解体案에 대해서는 선듯 받아들이지 않으려는데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現象이 생긴것은 언커크解体問題에 대해서 政府가 뚜렷하고 表面的인 意思表示를 積極化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